

천국의 해님 아버지, 기독교 국경일인 미국에서도 신앙의 정화를 담는 일들이 일어나는 등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일들이 점점 힘들어지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크고 강한 능력이 역사를 더욱 간구하여, 숨겨져 있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한 은혜를 통하여 주를 믿고 그들을 위해 더욱 애쓰고 힘써 기도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태복음 28장 19-20)



□ L.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net
□ N.Y. :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www.chpress.net

제 1419호 2013년 1월 26일 (토)
사시 :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무슬림 선교 “내부자 운동” 으로 완수!

CT, 이슬람 선교 상황화 논쟁...6가지 형 장단점 소개

이슬람 선교현장에서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떠나지 않고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였지만 삶의 스타일이나 문화를 바꾸지 않고 사는 것이 가능한가? 바로 “내부자 운동”(Insider’s movement)이 이 논란의 주제이다. 이 운동은 선교학자 알프 윈터와 존 트라비스, 케빈 히긴스 등에 의해 주장된 전방개척선교(Mission Frontier) 전략의 한 방법으로, 특히 영적전쟁터의 최전방에서 개척선교를 해야 하는 무슬림선교에 효과적인 ‘맞춤선교전략’으로 거론되고 있다.

내부자운동은 말그대로 기독교로 개종한 무슬림이 기독교 신앙에 의해 ‘삶의 스타일이나 문화를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이 속한 공동체를 떠나지 않고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개종자는 그 사실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자신이 속한 문화나 종교의 정체성을 그대로 간직한 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 곧 자신이 속한 종교, 세계관, 관습, 문화 등을 떠나지 않고 마음속으로는 예수를 따른다는 것. 내부자운동 주장자들이 내세우는 이 운동의 강점은 무슬림의 복음화를 외부 선교사가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개종한 무슬림들이 자신들의 공동체에서 직접 담당한다는 것이다.

크리스천티 투데이(Christianity Today, CT)는 커버스토리로 “내부자 운동”을 다루면서, 이슬람권에서 새로운 선교 모델이 되고 있다고 소개한다. 특히 찬반 논란이 끊이지 않는 이 운동이 중동이나 인도에서 수 세대에 걸쳐 진행돼온 “숨겨진 역사”를 말해준다(The Hidden History of Insider Movements: For generations, Islam and Hinduism have had believ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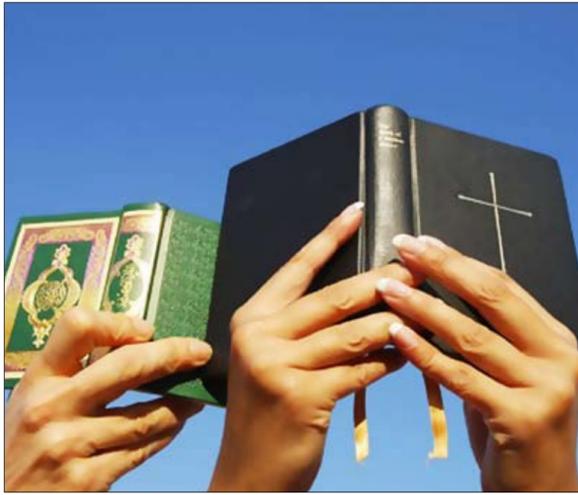
현재 “내부자 운동”은 전 세계적으로 선교의 새로운 모델로 각광을 받고 있다. 특히 미국의 20대 젊은 선교사들 가운데서 관심이 일고 있다. 그 이유는 무슬림 국가에서 기독교로 개종하게 되면 사회뿐 아니라 가족들에게서도 배척을 당하고 심지어는 목숨까지 잃게 되는 등의 각종 불이익과 위험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기독교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고 믿는 것이 필요한데다, 무슬림이 같은 무슬림을 전도하는 것이므로 서양 기독교인들에 대해 ‘반발심’을 가지고 있는 무슬림권에 적합한 선교전략이라는 의견이다.

또한 선교 역사상 기독교는 이미 다른 종교가 자리 잡고 있는 터전에 들어가 개종과 함께 서구 문화를 소개하면서, 한때는 식민주의를 확장

시키는 방편으로 선교를 병행했기 때문에 반감을 많이 사고 있다. 따라서 교회보다는 오히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만 힌두나 무슬림 문화를 고수하며 살아가는 “내부자 운동” 또는 무교회 기독교는 이슬람권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이 되었다.

특히 동남아시아 무슬림들을 위한 선교에서 내부자 운동을 수행하는 무슬림 개종자들이 기독교에 대해 이미 편견을 가지고 있는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기독교와 이슬람에 대해 중립적인 자세를 취하면서 친족이나 친구에게 복음을 전할 때 훨씬 효과적인 사역의 결실을 거둘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신학자 호퍼(Herbert E. Hofer)는 그의 책(“Churchless Christianity”)에서, 인도에서는 “예수를 따르



이슬람선교의 여러 유형중 ‘내부자 운동’은 새로운 선교모델로 각광 받고 있다.

는 헌신자”(Jesu bhaka)라고 불리는 크리스천들이 가시적 교회에는 다니지 않고, 힌두교적 문화라는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살아가고 소개한다. 16만 명으로 추정되는 이들은 자신들을 “크리스천”이라 부르지 않으면서 교회공동체와는 무관하게 살아간다.

마찬가지로 이슬람권에서도 “이 사(Isa)”라고 불리는 무슬림들이 예수에게 예배하며 그들의 집에서 모임을 가지며, 하나님께 복종하며 살아간다. 거의 20만 명으로 추정되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복종한 궁극적 모델로 믿고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내부자 운동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바로 순수한 복음의 정체성이 상황화로 둔갑해 종교적 혼합주의를 정당화 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다.

“내부자 운동”은 많은 사람들에게 선교적 목적을 달성한다는 점에서 그 효율성이 높을 수도 있다. 그러나 다원주의와 혼합주의로 변질될 위험성이 있으므로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 반대하는 진영의 입장이다. 다시 말해서, 물론 “내부자운동”의 장점으로서, 선교지에서 다른 종교와의 갈등은 현저히 줄어든다. 그러나 기독교의 ‘오직 예수’라는 신앙은 본질적으로 절저히 배타적이고 절대적이기에, 상대화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마리아상 앞에서 마리아 찬송과 기도를 하고, 불상 앞에서는 절을 하고, 모스크에서도 절을 하면서 예수 믿는 신자라고 자처한다면 그것은 두말 할 것 없이 거짓 선교며 타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3면으로 계속)



보수-진보, 통합인가 양분인가 2면



의미 있는 회의를 원하십니까? 3면



아는 게 힘이다 가치관 전쟁 새라김 사모(TVNG 설립자) 5면



미리 가보는 성지순례 - 예수님의 발자취 (3) 7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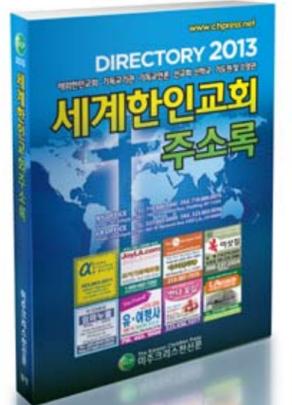


전세계 이슬람 주요 뉴스 전호진 박사 14면

사 고

‘2013년 세계한인교회 주소록’ 배포

본지가 발행한 ‘2013년 세계한인교회 주소록’이 배포되고 있습니다. 각 지역 배부 장소에서 무료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개인이나 교회에서 전화나 이메일로 신청하시면 우송해 드립니다. (우송료 별도)



지역별 배부장소

▶ 뉴욕, 뉴저지 지역

한국서적 (718)762-1200
할렐루야 기독교책점 (718)762-0011
임마누엘피아노(NJ) (201)943-5679

▶ 서부지역

기독교서적센터 (323)737-7699
도르가기독교서점 (714)636-7430
복음사 (562)865-4949
호산나서점 (626)810-0014
생명의말씀사(LA) (213)382-4538
생명의말씀사(OC) (714)530-2211
두란노서적 (213)382-5400
조이기독교책점 (323)766-8793
(이외 신학대학 및 은행과 마켓)

▶ 기타지역

커네티컷 하트포트 제일장로교회 (860)643-4738
플로리다 템파한인장로교회 (813)881-0069
일리노이 헤브론교회 (847)394-8454
메릴랜드 지구촌교회 (301)460-1656
큰무리교회 (301)476-7613
볼티모어교회 (410)337-9448
버지니아 주예수교회 (804)560-7500
필라델피아 영생장로교회 (215)542-0288
벅스카운티장로교회 (215)945-1512
노스캐롤라이나 전기현회게사 (704)332-5656

▶ 미주크리스천신문사

NY사무실 (718)886-4400
LA사무실 (323)665-0009

재미한인예수교장로회(고신)

2013년도 총회 강도사 고시 응시 공고

2013년 10월에 시행될 ‘강도사 고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자는 아래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서류는 한글과 영어 중 편리한 언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응시 자격

1) 본 총회 직영선교회 및 총회가 인준한 정규 신학교 M. Div 학위 과정 졸업자 혹은 2013년 5월 이전에 졸업예정인 자로 개혁신학의 신앙이 투철한 무릇 입교인으로서 확실한 소명과 영적 지도력을 가진 자,
2) 본 교단 소속노회에서 목사 후보생으로 일정기간 훈련을 받은 자

2. 응시 서류

1) 고시청원서
2) 이력서
3) 신앙고백서
4) 당회장 평가표
5) 노회장 추천서
6) 신학교 졸업장, 성적증명서, 학위기(해당자), 강도사 인허증(해당자)
7) 가족사진 사진 1장(최근 6개월 내, 5x7 Size)
※ 총회 웹사이트(www.kosinusa.org)에서 [총회사무행정]-[총회문서자료실]-“총회서시모음”

3. 서류 제출

1) 모든 응시서류는 2013년 5월 31일(금) 까지 제출하여야 함.
(단, 논문, 주해, 서면설교는 9월 30일까지 제출)
2) 서류 제출처 : 홍창우 목사 (Rev. Chang Woo Hong)
1823 Sharpe Rd, Greensboro, NC 27406, USA
TEL : (336)402-9658
E-Mail : sepcphcw@gmail.com
3)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궁금한 사항은 문의처로 문의할 것.
4) 등기확인 우편(registered mail)은 받지 않음.

4. 고시료

1) 고시료 : \$300.00 (예비교육비 포함)

5. 고시 과목

1) 목사고시를 위한 학습훈련 : 2013년 6월 중 예정, 장소는 추후 발표
2) 필기고시 : ①교회사(초대, 중세, 현대) ②조직신학 ③신약성경 ④구약성경 ⑤신약신학 ⑥구약신학 ⑦한국교회사 (이상 7과목)
※ 미국장로교회는 노회에서 실시함
3) 논술고시 : 논문, 주해, 설교(서면, 실기)

① 논문

a. 논문제목 : “개혁신학의 교회와 교회갱신” -정교도의 회심을 중심으로-
b. 표지(제목), 목차, 서론, 본론, 결론, 참고도서 순으로 작성
c. 분량: Letter Size, 30Page (영조 10pt, 행간 double or 200%, 여백은 2cm, 머리말0, 꼬리말1cm)
(영문은 Times New Roman 12Pt.)
d. 참고서적은 10권 이상
e. ‘논문 작성법’에 맞게 작성된 것만 유효함

② 주해

a. 사도행전 16:6-34
b. 분량: Letter Size 20Page (영조 10pt, 행간 double or 200%, 여백은 2cm, 머리말0, 꼬리말1cm)
(영문은 Times New Roman 12Pt.)

③ 설교

a. 레위기 10:1-7
b. 30분 분량의 설교를 원고(Full manuscript)로 제출
c. 동일 본문으로 5분 설교 실기시험

4) 면접고시

① 논문과 주해에 대한 질의
② 경건생활, 가정생활, 연구생활, 목회윤리, 사회윤리 등에 대한 질의
5) 면접장소 : 제29회 총회 장소

※ 한국고신에서 2012년 10월 이전 강도사인허를 받은 자는 위 과목 중 필기고시 면제

6. 고시일시 및 장소

1) 일시 : 2013년 10월 28일 월요일 오후 3:00 예정
2) 장소 : 2013년 총회 소집 장소
3) 구체적인 일시와 장소는 추후에 재미한인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 홈페이지(www.kosinusa.org)를 참고할 것

7. 합격자 발표

1) 2013년 총회 시
2) 합격자는 총회와 소속 노회에 보고함.

8. 기타사항

모든 채점은 100점 만점으로 하며 60점 이상 합격처리되며, 조건부 합격은 없음

9. 고시 문의처

1) 총회 고시부 부장 이유량 목사 (Rev. Yu Ryang Lee)
811 Linden Ave, Ridgefield, NJ 07657
Tel: (201)969-0909, (201)463-2774

2) 총회 고시부 서기 홍창우 목사 (Rev. Chang Woo Hong)



시론

내적 변화를 추구하는 한 해



최창섭 목사 (에벤에셀 선교교회)

많은 사람들이 새해를 시작할 때마 다 미래에 대해 막연한 희망을 가져 본다. 그리고 과거와 현재보다는 미래의 더 나은 삶을 기대하며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게 된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그 계획이 실천되고, 결과도 없는 계획으로만 남게 되어 이내 실망하고 만다. 그 어느 것 하나도 달라지지 않는 과거의 삶의 모습이 반복되다 보니 무기력증에서 헤어지지 못하게 되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또 새해를 맞이하게 되고 또 막연하게나마 희망을 가져보거나 또 절망감에 사로잡히게 된다.

요즘 언론매체를 통해 한국의 정치권이나 교단, 교회에서 "변화, 개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환골탈태를 외치고 있다. 그러나 지나고 보면 그렇게 되지 않는다. 사람과 제도를 바꾼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새로워지는 것만은 아니다. 최근 헌법재판소장 후보 청문회 광경을 접하면서 도덕적 흠이 너무 많기에 스스로 사퇴하라 목소리를 높인다. 곧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 청문회 광경까지 보게 될 것이다. 검증 받는 후보자들이나 검증하는 자들 모두 숨겨진 베일들을 하나씩 벗긴다면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크게 다를 것이 없을 것이다. 문제는 사람의 내적 인성이 바뀌지 않는 한 외적인 변화와 삶의 질은 크게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교회도 예외는 아니라고 본다. 교회자체의 문제가 아닌 그 교회를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이다. 작은 이익의 추구로 반목과 질시, 다툼이 끊어지지 않으며,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보다는 비본질적인 일에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어 정작 해야 할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게 된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 전체가 한 순간에 다 바뀌어질 수 없다. 먼저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로부터 한 사람씩 변화되어간다면 변화와 개혁은 누룩처럼 사회와 국가로 번져 나갈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의 외적인 것에서 그 무언가를 얻으려 기대하기보다는 내적인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즉 내 안에 계신 주님을 통해 신앙과 인격이 새로워질 때 외적인 삶의 모습의 변화와 더불어 삶의 열매도 풍성하게 맺히게 될 것이다.

시대의 흐름과 처해진 상황이 사람들을 너무 분주하게 만들고 있다. 특히 목회자와 성도들도 예외는 아니다. 너무 바쁘게 살다보면 삶의 우선순위가 뒤 바뀌어 먼저 해야 할 것들을 나중에 하게 되어 기회를 놓치게 되고, 정말 중요한 것보다는 덜 중요한 일에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다 쓰게 되면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것이 더 많다. 이제 내면의 성찰과 뼈를 깎는 듯한 회개가 없이 외적인 결과물의 추구에만 매달리지 말아야 한다. 분주한 삶속에서도 잠시잠간 시간을 내어 하나님과 조용히 독대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하나님과의 독대는 여러 가지 유익이 있다.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만나게 되며, 자신의 추하고 더러운 모습을 보면서 회개를 통해 용서를 받게 되며, 내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통해 사명자로 세우심을 체험하게 된다. 나아가 내적 변화를 통해 외적인 삶의 모습의 변화와 더불어 주의 부르심에 헌신하게 된다. 특히 하나님의 만남을 통해 내면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상처를 치유 받게 되어 성숙한 자의 모습으로 자신뿐만 아니라 남을 행복하게 해주는 기능적 역할을 감당하게 만든다.

사람의 마음속에 치유되지 않는 상처들 즉 불신, 외로움, 배반, 미움과 증오, 연속적인 삶의 실패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과도 좋은 관계를 갖지 못하게 되고, 삶의 행복감을 갖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는 일에 대한 성취도나 만족감도 없게 된다.

내면의 치유와 변화를 통해 외적 변화까지 수반되면 삶의 열매도 풍성하게 되며, 자신이 처한 가정, 교회, 직장, 사회와 국가도 행복하게 만드는 행복전도사로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되고, 이런 자들의 수가 늘어갈 때 교회와 민족에게 희망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보수-진보, 통합인가 양분인가

미 언론, 2기 집권 오바마 정부의 과제와 추진 방향 보도

국정 지지도 52%를 받고 있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1일 국회의사당에서 취임선서를 했다. 이로써 오바마 대통령 집권 2기 정권이 공식 출범하게 됐다.

오바마 대통령은 존 로버트 미 대법원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최선을 다해 미국 헌법을 수호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취임식에 참석한 귀빈과 의사당 주변에 모여든 수십만 명의 축하객들은 박수와 환호로 오바마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에이브러햄 링컨 전 대통령이 사용한 성경과 흑인 인권운동가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사용한 성경에 손을 얹고 취임선서를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식에 앞서 조 바이든 부통령과 전통에 따라 예배에 참석했다.

한편 이날 취임식을 보기 위해 워싱턴 인근을 비롯한 미국 각지에서 최대 80만 명의 인파가 모여, 취임식장 주변과 내셔널 몰은 새벽부터 축제 분위기를 이뤘다. 축하객들은 미국 국기인 성조기를 흔들며 오바마 대통령의 2기 정부 출범을 환영했다.

그러나 4년 내내 정권을 짓눌렀던 경기침체에 주요 현안마다 공화당과 버락길 협상을 벌여야했던 '격전의 4년'을 마무리하고 재선 대통령으로서 2기 임기를 시작한 오바마의 새로운 4년은 순풍에 돛단 듯 순항할 수 있을까?



미국의 새로운 전환점을 앞두고 산적한 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여론조사기구 퓨리서치가 지난 17일 조사한 오바마의 국정 지지도는 현재 52% 수준이다. 이 같은 지지율은 2차 대선 이후 연임에 성공한 대통령 7명의 2기 출범 시점의

수치를 택하고 있다.

지난 연말 부시감세안 연장처리 싸움에서도 협상에 응하라는 공화당 존 베이너 하원의장의 촉구를 뒤로 한 채 각계각층 국민들을 만나며 여론전을 펼쳤고 결국 공화당은 '중산층 파괴법'이라는 비난을 듣지 않기 위해 '올머겨자막기'로 지난해

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문화전쟁 즉 동성결혼 논란에서도 일반적으로 동성애자들의 권리와 인권에 사활을 걸고 있다.

취임식 연설에서도 "우리는 세니 커폴스(1848년 여성권리 획득을 위

리는 일이 끝날 때까지, 미국을 기회의 땅으로 여기는 이민자들이 환영받을 때까지, 우리 아이들이 보호받고 소중하게 여겨지고 안전할 때까지 우리의 여정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증진시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역설했기 때문이다.

측근인사 대거기용, 정치협상 상관 않고 "갈 길 가겠다" 경제회복 등 현안 산적...동성애자 권리/인권엔 사활 걸어

지지율 중 6위다. 2009년 취임 직후 국민 70%가 "오바마가 일을 잘해낼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 비율은 57%까지 떨어졌다.

낮은 지지율로 시작하는 2기 여정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로버트 슈블 노트르담대 미국학 교수는 "4년 전 거대한 약속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시야는 좁아졌다"며 "(국민들이) 한계가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됐다"고 뉴스전문채널 CNN에서 말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첫 집권 시 미완으로 남겨둔 숙제가 많다. 당장 국가 채무한도를 증액해야 하며 미봉책으로 남겨 놓은 재정지출 자동 삭감도 처리해야 한다.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복지정책과 이민법, 총기규제 개혁 문제도 풀어야 한다.

따라서 오바마 대통령의 공화당 협상 전략은 완전히 변했다. 주요 이슈에서 물러섬 없는 강경 모드를 고수하고 있다. 공화당 의원들을 직접 상대하기보다는 국민 여론을 등에 업고 공화당을 압박하는 우회전

12월 31일 밤 오바마의 제안을 받아들여야만 했다.

2기 행정부를 이끌어 나갈 주요 각료들의 면면을 봐도 첫 번째 임기와는 사뭇 다른 기류를 보이고 있다. 자신과 '코드'가 맞는 측근 인사들을 대거 기용했다. 지난 대통령선거 기간 방송토론 준비를 도왔던 존 케리 상원 외교위원장을 국무장관에, 국방비 삭감과 친 이스라엘 정책 수정 등에서 보조를 맞춰왔던 척 헤이글 전 상원의원을 국방장관에 각각 기용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또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국장과 비서실장을 잇달아 역임하면서 오바마 행정부 경제정책을 주도한 것으로 평가받는 제이콥 루 실장을 신임 재무장관에 지명했다.

이에 대해 워싱턴포스트는 "급진적이고 대결적인 인사"라고 총평했고, 시사주간지 더 위크는 '에스맨 동아리'라고 지적하는 등 비판적인 시각이 적지 않지만 자신의 국정철학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인사들을 직접 배치해 집권 2기에는 정치 협상에 구애받지 않고 '갈 길을 가겠다'

한 최초의 회의 개최지), 셀마(1965년 인권운동인 몽고메리행진 개최지), 스톤월(1969년 동성애 인권운동 중심지)에 이르기까지 모두 평등하게 창조했다는 자명한 진실이 계속되고 있음을 선언합니다. 이제 선구자들이 시작한 이런 일을 이어가는 것은 우리 세대의 몫입니다. 우리의 아내와 어머니, 딸들이 노력에 맞는 평등한 소득을 얻을 때까지, 우리의 동성애 형제·자매들이 법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같은 대접을 받을 때까지, 모든 국민이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해 몇 시간씩 기다

이와 같은 동성결혼 지지는 바로 민주당 측 오바마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는 기반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오바마 대통령 재선에 동성애 로비스트들이나 단체들의 막대한 자금 지원과 인력이 투입됐기 때문이다. 코드가 맞는 측근인사들을 주요 요직에 인선한 것처럼 자신을 지지하는 기반을 바탕으로 그들의 이해관계에 부합되는 정책들을 펼쳐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3면으로 계속)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L.A. Office 601 N. Vermont Ave. #202, Los Angeles, CA 90004 Tel:(323)865-0009(대 표) (323)865-9025(광고국) Fax:(323)865-0056(편집국) (323)865-0046(광고국) E-mail: la@chpress.net

발행인 겸 편집인: 장영춘 편집국장서리:유원정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대표) (718)886-4424(편집국) Fax:(718)886-0074(대표) E-mail: ny@chpress.net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except for April 21, and Dec.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Midwest University advertisement featuring a large image of the university building and text in Korean and English. Text includes '글로벌 인재 발굴과 양성을 실현하는', 'Midwest University', 'Founded in 1986', 'www.midwest.edu', '2013년 신입생에게 특별 장학혜택을 드립니다.',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ESL, 학사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 'Midwest 특징',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admissions.

의미 있는 회의를 원하십니까?

리더십저널, 벤 리드 목사의 교회 회의 원리 소개

교회에서 목회자들은 무척 많은 회의를 한다. 회의가 목회 일정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때로는 회의 시간이 시간 낭비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것이다. 목회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회의 시간이 무의미하게 지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몇 가지 원칙들을 벤 리드(Ben Reed) 목사가 소개한다. 그는 미국 클락스빌에 소재한 은혜커뮤니티교회의 소그룹 목사이며 정기적으로 블로그(Life and Theology)를 통해 다양한 주제의 글을 게시한다(Bring These Rules to Your Next Meeting). 리드 목사가 소개하는 원칙들을 따르면 회의 때문에 생기는 두통을 없애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창단20주년을 맞이한 남가주장로성가단 연습모습

항상 수첩을 가지고 들어가라!

회의 시간에 아무것도 적지 않으면 사람들은 여러분이 회의의 별 관심이 없다고 여기게 된다.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반드시 수첩에 받아 적는다. 스마트폰이나 전자 패드를 이용해 좋다. 언제나 참석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경청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더불어 이미 적어 놓은 목록을 가지고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

가치 있는 회의가 되도록 하라!

여러분의 시간을 포함해서 회의에 참석한 모든 사람의 시간은 매우 소중하다. 아이디어 회의이건, 계획 수립 회의이건, 사람을 세우는 문제이건 간에 회의시간마다 아무런 결론이나 진전 없이 "다음 회의시간에 결정합시다"라고 말하면서 회의를 끝내서는 안된다. 단 하나의 결정사항 없이 끝나는 회의는 모두에게 시간 낭비로 여겨질 것이다.

사전 정보 없이 회의에 들어가지 마라!

회의 내용이나 사람들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이나 정보 없이 들어가는 안 된다. 내용과 사람들에 대한 어느 정도의 정보와 이해가 있어야 효과적인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아침에 집을 나서기 전 이메일을 확인하라!

이메일을 확인하지 않고 바로 회의에 들어가면 낭패를 볼 수도 있다. 밤사이 여러 사람이 회의 관련 내용이나 자신의 사정에 대한 이메일을 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일을 확인한 후 회의에 들어가야 실수하지 않게 된다.

생각의 문을 닫으라!

목회자는 집에 돌아오면 되도록이면 생각의 문을 닫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역의 연장선상에서 계속 일하게 되는 것이다. 회의와 사람들이 매우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 자신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이 재충전되지 않으면 회의 시간에 여러분은 아무것도 나눠 줄 것이 없게 된다.

무슬림 선교 "내부자 운동" 으로 완수

(1면에서 계속)
이러한 논란은 지난 20년 동안 진행돼왔다. 선교의 효율성 측면에서 각광을 받지만, 선교의 독특성 영역에서는 혼합주의로 풀려갈 수 있기 때문이다.

체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무슬림들이 사용하는 언어, 즉 아랍어나 터키어가 사용된다.

C-3: "내부 언어를 사용하는 상황화 된 그리스도-중심 커뮤니티들이 중립적 문화적 형태들을 사용한

C-5: 예수를 구주로 믿는 '메시아니 무슬림'로 구성된 그리스도-중심 커뮤니티들로, 이들은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는 이슬람이다. 이들은 성경에 비추어봐서 양립할 수 없는 이슬람 신학적 내용들을 부정하거나 재해석한다.

C-6: "지하/비밀스럽게 예수를 믿는 소규모 그리스도-중심 커뮤니티

정통 핵심 종교들과의 정면 대결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중 가장 큰 세력이 이슬람이다. 2001년 이후로 이슬람에 대한 책들이 범람하고 있다. 아쉬운 것은 대부분이 이슬람에 대한 개인 경험적 차원의 글이거나 아니면 고전적 틀을 벗어나지 못한 이슬람 이해와 접근에 대한 내용들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내부자 운동'

고전적 이슬람 선교방법 한계...과감한 상황화 모델로 각광

C-4 유형 가장 적절한 상황화 형태 C-5 유형 가장 논란

결국 선교학자 존 트라비스는 무슬림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내부자 운동을 다음과 같이 6가지 정렬해 바라본 모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다(The C1 to C6 Spectrum: A Practical Tool for Defining Six Types of 'Christ-centered Communities'(C) Found in the Muslim Context):

C-1: "외부 언어를 사용하는 전통적인 교회"로 외부 언어는 이슬람 문화권이 아닌 기독교에서 사용하는 언어로, 이들은 자신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부른다.

C-2: "내부 언어를 사용하는 전통적인 교회"로 전통적인 교회공동

체" 무슬림 언어를 사용하며 민속 음악이나 의상 그리고 예술로 기독교 신앙을 표현한다. 대부분의 내부자 운동이 여기에 속한다.

C-4: "내부 언어를 사용하는 상황화 된 그리스도-중심 커뮤니티들이 성경적으로 허용되는 이슬람식 문화나 형태들을 수용한다. 한마디로, 성경에서 금지하는 것 이외에는 모든 이슬람식 문화를 받아들인다.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호칭도 '알라(Allah)', 기도(Salat), 복음(Injil) 등이 허용된다. 여기에, 이슬람식 문화습관인 돼지고기를 안 먹고, 알코올과는 멀리하는 것도 실천된다. 이슬람 커뮤니티에서 C-4 추종자들은 무슬림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티'로 남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알게 되면 가족이나 커뮤니티 그리고 정부로부터 보복이나 박해, 위협을 당하면서 살아간다. 이들은 예수를 은밀하게 예배한다. 그러나 발각되면 거의 감옥이나 죽음에 처해진다.

대부분의 선교학자들은 C-4 유형을 이슬람권에서 가장 적절한 상황화 형태라고 받아들인다. 그리고 C-5 유형이 가장 논란이 된다. 이들은 실제로는 무슬림적 배경이 아닌 상호 함에서 무슬림적 정체성을 유지한다. 그리고 무하메드를 무슬림들을 다원주의에서 유일신으로 이끌어낸 "선지자"로 받아들인다. 결론으로, 21세기 선교는 세계의

동' 모델은 이슬람을 심층적으로 다루면서 새로운 접근법을 과감하게 제시하고 있다. 한마디로, 고전적 이슬람 선교 방법은 한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인가 새로운 접근을 갈구하고 있는 상황에 등장한 것이 과감한 이슬람 상황화 모델로서 "내부자 운동"이다.

물론 이 모델은 아직 모양을 다듬어가는 과정으로서 논쟁의 여지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왜곡되거나 복음을 희석시키지 않는다면, 내부자 운동은 이슬람권을 복음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 나라 사역의 진양지가 될 것이라고 선교학자들은 전망한다.

창단 20주년 맞은 남가주장로성가단

20주년 기념행사 준비 다양



창단20주년을 맞이한 남가주장로성가단 연습모습

창단 20주년을 맞이한 남가주장로성가단(단장 최대현 장로, 지휘 김원재 이하 장로성가단)이 20주년 기념행사 준비로 분주하다.

1992년 12월14일에 창단돼 현재 각기 다른 교단의 57개 교회에서 헌신하고 있는 장로들로 구성된 남성장로 합창단인 이 장로성가단은 창단 20주년을 맞은 2013년에 세 가지 큰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먼저 제20회 정기연주회를 8월 18일(주) LA 다운타운에 위치한 월드디즈니홀에서 개최하게 된다. 최대현 단장은 "20년째가 되는 올해가 장로성가단의 분깃점이 되는 해이다. 이 특별한 해에 뭔가 하고자 월드디즈니홀에 20년 연주회를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두 번째 창단 20주년 기념문집을 제작해 20년 역사를 기록할

제20회 정기연주회: 8월 18일, 월드디즈니홀

창단 20주년사 발간: 20년 역사기록, 찬양사역 기초마련
평양찬양선교연주회 기도하며 준비...3-40명 단원도 모집

뿐만 아니라 장로성가단의 역사를 후대에 남겨 찬양사역의 기초를 이루고자 한다. 세 번째는 평양찬양선교 연주회를 준비 중에 있다.

최대현 장로는 "평양연주회는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매우 낮다. 그렇지만 준비하고 있다. 지난 4월 미국 남성합창단이 평양에서 찬양연주회를 한 적이 있다. 장로성가단은 평양에 있는 봉수교회, 칠골교회 등에서 연주회를 갖고자 한다. 북한문제는 국제정세에 따라서 갈수도 못할 수도 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하는 일이기엔 평양연주회 개최여부가 불분명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연주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로성가단은 올해 단원모집을 하고 있다. 30-40명 정도를 모집하며 자격은 65세 이하 남성장로이면 누구나 환영한다.

남가주장로성가단 문의는 최대현 단장(909-331-7940), 김성일 부단장(213-399-0778), 이보영 총무(310-720-2770)에게 하면 된다.

(박준호 기자)

(2면에서 계속)

결국 사실 오바마 2기에 짙어지고 가야 할 과제는 안팎으로 산적한 상태다. 경제회복과 일자리창출이라는 기본 과제에 정부지출 삭감안 등 재정적자 해결, 호기롭게 칼을 빼든 총기규제 대책, 이민법 개혁, 아프간 전쟁 마무리, 오바마케

어의 시행 등 어떻게 보면 역사상 첫 흑인대통령으로서의 오바마의 성공은 2기 국정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대통합으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진보와 보수로 선포하게 미국 사회를 갈라놓을지,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는 것이다.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2013년도 목사 학력 및 고시 공고

The General Assembly of Korean-American Presbyterian Church

2013 Pastoral Ordination Candidacy Qualification and Examination Announcement

2013년 5월 시행될 "목사 학력 및 자격 고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자는 아래 요령과 같이 지원하여 주시기 바라며, 모든 서류와 시험은 한글과 영어 중 편한 언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응시 자격 (Candidacy Qualification)

본 총회 직영 신학교 및 총회가 인준한 정규 신학교 M.Div 학위를 졸업하였거나 2013년 6월 이전에 졸업 예정인 분으로 개혁주의 신앙이 투철한 무후 입교인으로서 확실한 소명과 영적 지도력을 가진 분

2. 고시 일자 및 장소 (Examination Date and Place)

- 1) 고시 일자: 2013년 5월 17일(금) ~ 20일(월)
- 2) 고시 장소: The Westin Los Angeles Airport (310-216-5858) 5400 W Century Blvd, Los Angeles, CA 90045

3. 고시 과목 (Examination Subjects)

- 1) 필기고시: (1)교회사 (2)조직신학 (3)미국장로교회사 (4)헌법 (이상 4과목)
- 2) 제출고시: (1)구약주해 (2)신약주해 (3)논문 (4)설교원고 (이상 4편)
제출고시 내용
(1) 구약 주해 - 야소스 9:11-15
(2) 신약 주해 - 마태복음 16:13-20
(3) 논문 제목 - 쥘기세프 연구 및 적용에 관하여 개혁주의적 관점에서 논하시오
(4) 설교 원고 - ① 신약: 누가복음 9:23-27
② 설교원고를 작성하여 제출할 것
③ 필기고사 당일 본인 선택한 논문을 중심으로 설교설교원고사를 치를 것
(5) 제출고시 과목에 관한 요령 - 주해 및 논문은 아래 지침에 따라 작성하되, 한 부는 인쇄하여 제출하고, 한 부는 PDF 파일로 서기에 이메일 할 것.
1. Letter Size(8 1/2 x 11)용지를 사용 할 것.
2. 한글 11호 크기의 글자를 사용하되, 줄 간격은 180% 간격으로 (영문 12호 Double Space) 작성할 것.
3. 논문과 주해는 각각 25매 내외로 작성하며, 설교원고는 30분 분량의 원고
4. 논문과 주해는 논문작성 원칙에 따른 것이며 인용구는 각주를 사용할 것
5. PDF 파일을 보낼 때는 주제이름을 파일 이름으로 사용할 것
3) 면접 고시

4. 응시 서류 (Accompanying Documents)

- 1) 신학교 졸업 증명서 또는 2013년 8월 이전 졸업 예정 증명서, 학교장 확인서 중 1부
- 2) 신학교 전 과정 성적 증명서 1부
- 3) 소속 노회장 추천서 1부
- 4) 소속 노회 목사 후보생 증명서 1부
- 5) 이력서(자세한 신력을 기재해야 함) 1부
- 6) 영함판 사진 2장

5. 서류 제출 요령 (Instructions for Documents and Written Assignments Submission)

- 1) 모든 응시 서류 및 제출고시 과목원고는 2013년 3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함 (2013년 3월 31일자 우체국 소인이 찍힌 것은 유효함. 그 이후는 접수하지 않음)
- 2)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3) 합격자 발표는 37회 총회기간(5월 21일-23일) 중에 합격증서 수여와 함께 함

6. 참고 사항 (Miscellaneous Information)

- 1) 고시생은 고시부 서기 허상희 목사에게 속소를 예약할 것 5월 17일-21까지
- 2) 고시 당일 Notebook 컴퓨터를 사용하여 고시를 볼 수 있으나 아래 사항을 지킬 것
1. Word Process 이외의 모든 program은 들어오기 전에 지울 것
2. 시험 중에는 화면을 절대로 바꾸지 말 것. 허락없이 화면을 바꾸면 퇴장당함.
3. 프린터는 제공되지 않으므로 본인이 책임지고 준비할 것.

7. 응시 서류 및 제출 과목 원고 제출처 (Submission Address)

고시부 서기: 허상희 목사 (Rev. Samuel Heo) / Email: sheo1004@hotmail.com
495 Morse Ave Ridgely, NJ, 07657 / Cell: 201-981-0009

8. 기타 문의 (Contact Persons for Information)

- 1) 고시부 부장: 송찬우 목사 (425)773-0504 (chansong_hase@hotmail.com)
- 2) 고시부 서기: 허상희 목사 (201)981-0009 (sheo1004@hotmail.com)
- 3) 영어권 안내: 김지영 목사 (949)735-4905 (pastorjames@jubileepcc.org)
최해근 목사 (267) 471-7777 (hankschot@gmail.com)

빛과 소금으로...

엄규서 목사

(월서크리스천교회)



답은 있다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하면 '모나미'라는 불펜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한번 이상은 사용했으리라 짐작됩니다. 고등학교를 다니던 시절로 기억됩니다. 모나미 필기용품 제

조업체가 경쟁이 너무 심해 도산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는데 마침 이 제조업체 사장은 크리스천이었기에 모든 것을 뒤로하고 기도원에 올라가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분이 기도하면서

생각해보니까 사업하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던 것이 너무 많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중에 주일성수 하지 않았던 것이 생각이 나면서 "이제부터는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성수하겠습니다"라고 철저히 회개하고, 많은 돈을 벌고도 십일조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새벽기도하지 않은 것도 회개하며 새롭게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는데, 그 본문말씀이 요한복음 21장1-14절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153마리의 고기를 잡았다는 대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모나미153'이라는 불펜을 만들겠습니다. 이 불펜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의 손에 다 들려지게 해주세요"라며 기도하는 가운데 목표를 크게 잡아서

"50억 자루가 팔리게 해주세요"하고 기도를 마쳤다고 합니다.

아마도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는 발상입니다. 망해가는 회사가 50억 자루를 판다고 하는 것이 어찌 가능하겠는가? 아무튼 그분은 그렇게 기도하고 내려와서 모나미153 불펜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이게 웬일이냐고? 우리도 이 불펜을 써봐서 잘 알지만 그 불펜이 아주 평범하고 단순하고 아무리 살펴봐도 매력을 그리 느낄 수 없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에는 오히려 타사제품들은 노랑, 빨강의 예쁜 칼라의 예쁜 불펜들이 더 잘나오는 것 같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불펜은 안 팔리고, 이 모나미153 불펜은 지금까지도 불타나게 팔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몇 년 전에 통계가 나왔는데 50억 자루가 팔렸다고 합니다.

세계경제가 침체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기실업으로 인해 교회 앞에서 집을 자는 젊은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LA시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것이 어찌 가능하겠는가? 아무튼 그분은 그렇게 기도하고 내려와서 모나미153 불펜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이게 웬일이냐고? 우리도 이 불펜을 써봐서 잘 알지만 그 불펜이 아주 평범하고 단순하고 아무리 살펴봐도 매력을 그리 느낄 수 없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에는 오히려 타사제품들은 노랑, 빨강의 예쁜 칼라의 예쁜 불펜들이 더 잘나오는 것 같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불펜은 안 팔리고, 이 모나미153 불펜은 지금까지도 불타나게 팔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몇 년 전에 통계가 나왔는데 50억 자루가 팔렸다고 합니다.

80-84년 사이에 태어난 8,984명을 상대로 음주습관이나 체포경력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 취업률이 1%하락할 때 1세 생일을 맞은 아이들은 청소년기에 마리화나를 피울 확률이 9%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불황으로 인해 태어나는 아이들의 미래가 어두울 수밖에 없으니 씁쓸하기만 합니다. 또한 불황으로 인해 우울증 환자들도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황은 불행을 낳는다"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은 모나미 사장처럼 성공의 답을 찾았듯이 우리도 꿈꾸는 소망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답도 있다고 합니다. 한 해를 시작하며 절망의 늪에서 벗어나며 불행의 문제를 해결하는 행복의 답을 찾는 모두가 되길 소망해 봅니다.

푸 / 른 / 초 / 장

이지용 목사

(뉴욕갯세마네교회)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처음 가보는 길을 가는 것이기에 두렵기도 하고 걱정도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걸음은 나 혼자 걸어가는 걸음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걸음입니다.

오래전 말틴 루터(Martin Luther)와 존 칼빈(John Calvin)이 개신교 종교개혁을 할 때에 내세운 공통된 신조가 있었습니다.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항상 개혁되고 새 시대를 맞으려고 하는 각오를 하지 아니하면 쉽게 부패하고 퇴락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는 항상 주님 안에서 개혁되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의 심령도 항상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인 느헤미야 9장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해, 새 출발을 열고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의 결단으로 약속하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3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가정과 내가 경영하는 기업과 우리 교회가 무엇가에 둘러져서 패지 못하고, 전에는 번성했는데 지금은 쇠퇴하고, 전에는 행복했는데 지금은 고통이 있다면, 역사를 되돌아 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사는 하나님

의 자녀들은 로마서 12장1-2절 말씀처럼 반성하고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 했을 때의 결과는 광야 40년 생활이었습니다. 진도가 나가지 않았습니. 그러나 그들이 다시 여호수아의 인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

을 때에 요단강은 열리고 여리고성은 무너지고, 찢과 풀이 흐르는 가나안의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습니다. 2012년도까지는 광야 40년 방황하는 인생 같았을지라도 2013년도에는 요단강이 열리고, 여리고도 무너지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 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새해에 새 출발을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요?1. 하나님께 나의 죄 우리 죄를 낱알이 고백하는 회개

가 있어야 합니다(Confession of Sins).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 됩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 할 때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를 징계하신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하나님

의 자녀들은 로마서 12장1-2절 말씀처럼 반성하고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 했을 때의 결과는 광야 40년 생활이었습니다. 진도가 나가지 않았습니. 그러나 그들이 다시 여호수아의 인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

님의 자녀들은 로마서 12장1-2절 말씀처럼 반성하고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 했을 때의 결과는 광야 40년 생활이었습니다. 진도가 나가지 않았습니. 그러나 그들이 다시 여호수아의 인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

을 때에 요단강은 열리고 여리고성은 무너지고, 찢과 풀이 흐르는 가나안의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습니다. 2012년도까지는 광야 40년 방황하는 인생 같았을지라도 2013년도에는 요단강이 열리고, 여리고도 무너지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 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새해에 새 출발을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요?1. 하나님께 나의 죄 우리 죄를 낱알이 고백하는 회개

가 있어야 합니다(Confession of Sins).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 됩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 할 때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를 징계하신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하나님

의 자녀들은 로마서 12장1-2절 말씀처럼 반성하고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 했을 때의 결과는 광야 40년 생활이었습니다. 진도가 나가지 않았습니. 그러나 그들이 다시 여호수아의 인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

을 때에 요단강은 열리고 여리고성은 무너지고, 찢과 풀이 흐르는 가나안의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습니다. 2012년도까지는 광야 40년 방황하는 인생 같았을지라도 2013년도에는 요단강이 열리고, 여리고도 무너지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 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새해에 새 출발을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요?1. 하나님께 나의 죄 우리 죄를 낱알이 고백하는 회개

고 흥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마른 땅처럼 건넌게 하시는 기사와 이적을 베푸시는 권능자 하나님 이시라는 것입니다.

욥1:21-22절을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일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에 고통, 고난이 와도 "언제나 하나님은 잘하셨습니다"라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욥이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해서 두 배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율해에는 두 배 축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죄를 고백 할 때는 내가 미련하고 내가 패역했다고 하는 진실한 인정이 있어야 합니다. 느헤미야 9:34-35 이 구절들은 우리의 미련

이에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죄를 진실하게 고백하는 것은 개인, 가정, 국가, 교회가 새 시대를 열어주는 관건이 되는 것입니다. 새해, 새 시대를 열려면 진실 되게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2. 새해에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의 결단이어야 합니다.

느헤미야 9장 38을 보면 "우리가 이 모든 일을 인하여"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언약을 세워 도장을 찍었다는 것입니다. 방백, 제사장, 레위인, 백성의 두목도 찍은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 가운데 지식과 총명 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

의 날을 철저히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힘쓰겠다는 것입니다. 성도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고 주일날은 필히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오늘 믿음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새해부터는 거룩하고 위대한 결단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성전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겠다는(10:33-34): 하나님의 전을 돌보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내 집이며, 우리 집입니다. 내 집이니 내 자신이 돌봐야 합니다. 넷째는 첫 열매와 십일조를 드리겠다는(10:35-39): 사람이 무슨 소득이 있든지 첫 열매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머지를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주시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십일조를 드리지 않아도 복을 받습니다. 자신들의 노력으로 받는 것이 원리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 원리와 다릅니다. 과거의 잘못이 있었다면 반성으로 끝나면 안되고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행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과 한 가지라도 언약을 맺고 2013년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우리는 실패를 이기고, 새해를 맞이 위해서는 죄를 고백하고, 말씀 안에서 믿음 결단함으로 새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느헤미야 9장 17절, 28절, 31절을 기록된 것처럼, 그것은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과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하면 용서도 주시고, 구원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찢과 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새 출발

(느헤미야 9:32-38, 10:30-39)

함과 패역함으로 인해 우리의 길이 굽어지고 놀림과 고난이 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모두 다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고백했습니다. 목을 곧게 해서 불순종했습니다. 거역했습니다. 반항했습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들을 대적하고 죽였습니다. 주의 종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악행을 행했다고 고백하는 구절입니다. 사람과 사이에서도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부족했습니다. 내가 약했습니다"라고 하면 원수라도 화복하게 되어 집니다. 그런데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라고 배치기로 나오면 상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관계 개선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 사

님이 옳다 하신 일은 나도 옳다고 인정하겠고 아니라고 하는 것은 나도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살겠습니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지은 죄를 고백하고 정리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하나님 편에 서서 일상생활을 살겠다고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느헤미야 10장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결단들을 합니다. 첫째는 이방인과 혼인하지 않겠다(10:30): 한 가정에 신앙의 수준을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분위기를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정 가운데 신앙을 해치는 일을 하지 않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키겠다(10:31): 주

ATS 인준 쉐퍼드 대학교 신학대학만이 드리는 미래를 위한 높은수준의 편안한 교육



주님을 위한, 세계를 향한
For the Lord, To the World!!

쉐퍼드대학교 신학대학의 사명은
훌륭한 기독교 고등 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탁월한 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입니다.

한국계 학교로 시작하여 미 주류 종합대학으로 놀랍게 성장하고 있는 쉐퍼드와 여러분의 성장을 함께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 1 미래**
 - 미군 군국 종교 진출
 - 미 주요교단 안수가능
- 2 높은수준**
 - ATS 인준 (Candidacy)목회학사, 목회학박사과정 및 신학 학사 프로그램
 - 세계 최고의 영적 리더십을 통한 교육
- 3 편안한 교육**
 - 다양한 장학혜택과 저렴한 학비
 - 영어강의 / 통역강의

이제 세계적 명성의 신학자들과 더불어 자신있게 공부하십시오!

후안 까를로스 오르티즈 박사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성령 운동의 주체이자 20세기의 성경적 재지향론의 창시자이다. 영성과 교회 성장, 제자 훈련을 주제로 전 세계에 나가 리더십을 발휘함으로써 세계적으로 알려진 분이며, 그의 책 '제자'가 출판 이후 세계적 베스트 셀러가 되었고, 그 외 20여권의 책이 한국어로 출판되었으며 현재 쉐퍼드 신학 대학에서 영성, 교회성장, 제자도 분야에서 재직을 담당하고 있다.

찰스 크래프트 박사

영적 전쟁과 내적 치유의 세계적인 전문가로 지난 수 십년간 미국은 물론 한국, 호주, 독일, 스위스, 태국, 대만 등 세계 여러 국가에서 내적 치유 세미나를 인도하였다. 저서로는 '깊은 상처를 치유하는 8단계', '사탄의 영을 대항하라',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라', '능력 기복' 등이 한국어로 출판, 세계적인 평판을 받고 있으며 현재 쉐퍼드 신학대학에서 내적치유를 강의 하고 있다.

에드 실보소 박사

Harvest Evangelism의 설립자이자 회장이다. 한 세대의 가장 영향력 있는 신도, 선교 전략가이다. 그는 피터 와그너, 잭 웨이모드, 빌 브라이트 박사의 지도자들에게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고, 그의 운동은 세계 60여 도시에서 도시 및 기간(지역)을 전도로 선교의 차원에서 변화시키는 새로운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저서로는 '인류도 멸망하지 않기를', '기도전도', '사랑의 기쁨' 등이 한국어로 번역되어 있다.



SHEPHERD UNIVERSITY

3200 N. San Fernando Rd., Los Angeles, CA 90065 / info@shepherduniversity.edu / www.shepherduniversity.edu

SEVIS
I-20 발행

상담 및 입학문의
323-550-8888



아는게 힘이다! 가치관 전쟁



새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미국이 처음 건국될 때부터 오늘날까지 기독교적 가치관이 이 나라의 도덕적 기준과 양심의 기준이 되는 기둥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또한 기독교 가치관이 기준이 되어 가정, 생명, 교육, 경제, 다음세대 위한 사회 문화 정치적 투자 등 시민들을 위한 수많은 연방정부, 주정부의 법들과 헌법들이 만들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지난 4년 동안 지금 미국에서 제정되고 있는 여러 발의안들과 법안들은 기독교의 가치관을 내팽개치고 기독교 신앙을 위배할 뿐 아니라 당당하게 법적으로 하나님을 저버리게 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대항하는 법안들이 점점 왕성해지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정부가 시민들로 하여금 정부에서 의무화하는 하나님의 법에 위배되는 법들을 선택할지, 아니면 하나

지입니다.

따라서 Hobby Lobby의 회사입장에서 자신들이 낸 세금으로 생명을 죽이는 낙태와 피임을 법적으로 지지하는 오바마 케어를 찬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Hobby Lobby를 대표하는 변호사에 의하면 개인의 신앙의 자유를 침해할 뿐 아니라 자신의 회사전 직원들에게까지 반기독교적인 행위를 강요하게 하는 법안에 Hobby Lobby는 동조할 수 없으며, 그 법안을 의무적으로 지키게 만든 정부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것이 그들이 오바마 케어 의료보험에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결론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이 소송을 제기한 내용이 US District Court와 US Supreme Court까지 상정되었지만 안타깝게도 지난 12월 27일자로 Hobby Lobby의 소송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첫 번 소송에서 이기지

방송에서 정치논객으로 잘 알려진 마이크 허카비는 Hobby Lobby 회사의 이익을 듣자마자, Chick-Fil-A를 지지하기 위해 Appreciation Day, 즉 “감사의 날”을 만들어 크리스천들의 지지를 요청한 것처럼 Hobby Lobby를 위한 “감사의 날”을 만들어 Hobby Lobby 기업을 격려하도록 당부하였으며 미국 전역의 기독교인들에게 Hobby Lobby 기업을 대한 지지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전국적으로 Chick-Fil-A를 지지하던 기독교인들이 지금은 반기독교적인 오바마 케어에 맞서는 Hobby Lobby를 지지하고 격려하기위해 서명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Hobby Lobby의 이런 모습에 지지의사를 표명하고 싶은 분들은 TVNEXT.ORG로 가시면 어떻게 지지하실 수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기독교적 가치관 고수로 부당한 핍박 받는 기독교 기업들과 학교들

님을 향한 나의 믿음과 신앙을 선택할지를 강요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심각한 선택의 기로에 놓여있는 것이 바로 미국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교회와 성도들은 모두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미국의 회복을 외치며 기도해야 할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Hobby Lobby라는 스토어(store)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Hobby Lobby는 기독교적 가치관을 기준으로 공예, 미술, 옷 만드는 천, 등 Michales와 같이 공예에 관련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크리스천 기업입니다. 그들은 Chick-Fil-A라는 크리스천 기업처럼 주일에는 문을 열지 않습니다. 또한 그들의 비즈니스 공문에는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기업을 운영한다”라는 내용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고백문도 명시되어 있는 기업이며 현재, 미국 전역 42개주에 525개의 스토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 Hobby Lobby 기업이 지난 2012년 9월 오바마 케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들이 소송을 제기한 가장 큰 이유는 오바마 케어가 낙태와 피임에 대한 의료보험 커버를 Hobby Lobby라는 회사를 통하여, 모든 회사 직원들에게 의무적으로 무조건 커버시켜줘야 한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Hobby Lobby가 만일 오바마 케어를 통해 의료보험을 사용할 경우, 아직 태어나지 않은 소중한 생명을 죽이는 낙태와 morning after Pill이라는 “비상피임”약들을 커버해주는 의료보험에 의무적으로 내는 그들의 세금이 자동적으로 후원금처럼 낙태를 위해 사용이 되기 때문인

못한 Hobby Lobby는 오바마 케어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2013년 1월부터 매일 130만 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Hobby Lobby는 직원들에게 의료보험을 계속 해주지만 자신들의 신앙에 위배되는 일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비민주적이고 기독교 신앙의 자유를 빼앗는 오바마 케어 법안에 맞서 앞으로 계속 싸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바마 케어는 Hobby Lobby 뿐 아니라 점점 많은 기독교기업들과 학교, 병원, 가톨릭 교구들에게 같은 문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두 달 전인 2012년 11월에는 가톨릭대학교인 Christendom College에서 오바마 케어의 의료보험을 반대하는 법적 소송들이 또 다른 가톨릭 15개의 대학교와 함께 소송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많은 가톨릭 대학교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오바마 케어에 소송을 제기하게 된 이유는 자신들보다 먼저 오바마 케어에 소송을 제기한 Belmont Abbey College와 Wheaton College와 함께 믿음의 싸움을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이 대학교들이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학생들과 가정들이 오바마 케어의 의료보험 법안을 통하여 잃어버리게 될 신앙의 자유와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시민의 권리를 다시 되찾고자 법적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는 그들 변호사들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알칸사스의 44번째 주지사였으며 2008년 공화당 대통령 후보였고 남침례교 목사로서 여러 책들도 쓰고 현재 ABC

지금 이 시간에도 Hobby Lobby 뿐만 아니라 점점 많은 기독교 학교, 기독교 기업들, 기독교 병원들이 단지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고수하는 것만으로 부당하게 핍박을 받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핍박과 함께 정부에 내야 하는 벌금의 액수는 엄청납니다.

오바마 케어에 대해서는 이미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상 미국에서 가장 뜨거운 논쟁중의 하나며 무엇보다도 오바마 케어를 반대하는 법적소송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오바마 케어의 장점들도 있으며, 따라서 오바마 케어를 좋아하는 시민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회에는 오바마 케어를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하여 오바마 케어의 전체적인 그림(장단점)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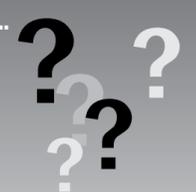
기도부탁

마지막으로 이 모든 상황들은 미국이 얼마나 깊이 심각한 영적 가치관 전쟁 속에 있음을 알게 해줍니다. 앞으로 또 어떤 기업과 학교, 성도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 핍박을 받게 될지 모릅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들과 그들의 가정이 계속 믿음에 굳건하게 서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이방의 고기를 먹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도록 중보기도로 그들을 후원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메일: tvnext.org@gmail.com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나성서부교회 / (310)749-0577
E-Mail: lakwpc0316@gmail.com

Q: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나 평신도 지도자인 장로나 안수집사는 오늘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에 교회에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교회를 섬겨야 하는지요?
-나성에서 권 집사

A: 우리가 교회를 올바르게 섬기려면 바른 교회관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동안 이민교회를 목회하면서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나 평신도지도자는 3가지 감각이 필요하다고 느껴왔습니다.

1. 균형 감각입니다. 미국에 있는 보수주의 장로교회가 갖는 약점은 보수주의 장로교회가운데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교회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감동이 없는 교리적인 냉랭한 것만으로는 오늘날 포스트모더니즘시대의 사람들을 끌어들이기가 매우 어렵다는 결론입니다. 그렇다고 오순절 계통의 사람들처럼 성령강림이나 감성적인 것만 매일 터져서도 오랫동안 목회를 존속하기가 힘이 듭니다. 중요한 것은 균형 감각입니다. 교리적인 말씀과 성령님의 역사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예배나 찬양에도 전통과 개혁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어떤 교회는 찬송가는 하나도 부르지도 않고 복음

지도자가 가질 3가지-균형감각, 긍정적 사고, 용량 넓히기

성가만 부릅니다. 어떤 교회는 복음성가는 일제 배제하고 찬송가만 고집합니다. 설교도 올바른 신학바탕과 은혜체현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교회 행정도 은혜와 진리 즉 법과 사랑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특히 교회의 지도자는 이 균형 감각이 있어야 합니다. 글로벌하면서도 로컬하고 로컬하면서도 글로벌한 안목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한편으로 치우치면 안 됩니다.

2. 플러스 발상입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일례로 무엇을 하다 실패했다면 “나는 실패자”라고 자신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수업료가 많이 들었지만 좋은 경험을 했다”라고 긍정적으로 말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인생이란 모든 것이 내 계획대로만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비결은 현재를 즐기며 모든 것을 긍정하고 감사하고 플러스 발상을 하는 것입니다. 이 플러스 발상은 이민생활과 교회를 섬기는 데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perspective(관점)가 중요합니다. 행복과 불행, 성공과 실패는 내 생각에 달려 있습니다. 마음의 자세가 관건입니다. 특히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사람들은 늘 사물과 사건을 긍정적으로 보고 말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3. 용량(Capacity)을 넓혀야 합니다. 교회의 부흥과 성장은 교회의 지도자들과 성도들의 그릇에 달려있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려면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는 용량을 갖추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릇대로 채워주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시무하던 교회를 섬길 때 교회가 부흥해 줘서 5에이커 이상의 학교건물을 사서 하버시티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본당에 에어컨 공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에어컨 공사에 에어컨 기계만 설치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재 건물에 사용하고 있는 전기용량이 약하기 때문에 전기의 용량을 더 높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용량을 높이지 않고 에어컨만 설치하고 작동시키면 다른 곳의 전기는 다 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티에 허락받아 새로운 전선주를 설치해 몇 달 걸려서야 에어컨 공사가 끝날 수 있었습니다. 그 때 저는 귀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큰일을 하는데 있어서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은 어제나 오늘이나 다름 없는데 우리 인간 편에서 나의 믿음의 용량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큰일을 하려면 나의 믿음과 사역의 용량을 높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2013년 이 새로운 시대를 끌고 나가고 오늘의 이민자에게 도전과 축복의 교회가 되려면 새로운 비전과 철학, 새로운 능력이 필요합니다. 무슨 용량을 높여야 하나? 1)믿음의 용량 2)기도의 용량 3)인격의 용량입니다.

귀하는 미래사역을 위한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레이스 신학대학원

본교 소개 및 특전

- 1. 75년의 역사를 가진 독일 경건주의 후예들이 세운 신학교
- 2. 학문과 경건을 겸비한 복음주의 신학교(ATS 정회원)
- 2. 미국에서 유일한 선교학 박사학위 한국어 프로그램(Online 강의, On Field, On Campus 강의로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학위과정을 마칠 수 있음)
- 4. 특전 (1) SEVIS I-20 Form 발행
(2) FAFSA(연방정부학자금)지원가능(영주권자 이상)
(3) 각종 장학금 제도

모집과정

- 목회학 박사과정(D.Min.)
- 선교학 박사과정(D.Miss.)
- 48 Hour Program
- 60 Hour Program

On Campus Courses 2013봄학기 본교강의안내

Feb 11-15(2월 11 -15일)
DI 851 Biblical Teamwork in Missions(선교에서의 성경적 팀사역)
For D.Mis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
Dr. Roger Peugh

Feb 18-22 (2월 18-22일)
DI 802 Cultural Anthropology (문화인류학)
For D.Mis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
Dr. Thomas Stallter

온라인 강의(8주간)

- Doctoral Courses (박사과정)
- A Session(Jan 7-Mar 1: 1월 7일-3월 1일)
DI 801 Intentional Multicultural Ministry(고안된 다문화 사역)
For D.Mis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
Dr. Thomas Stallter / Dr. Stephen Park
- B Session(Mar 11-May 3: 3월 11일-5월 3일)
DI852 World Religion(세계종교)
For D.Mis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
Dr. Thomas Stallter / Dr. Stephen Park

Off-Campus Courses

- Bangkok, Thailand**
 - Jan 7-11 (1월 7- 11일)
 - DI 831 History of Missions(선교역사)
 - Jan 14-18 (1월 14- 18일)
 - DI822 Cultures of the Old Testament(구약에서의 문화)
- Los Angeles, CA**
 - March 11-15(3월 11 - 15일)
 - DI 831 History of Missions(선교역사)
- Manila, Philippine**
 - April 15-19(4월 15 - 19일)
 - PM 804 Philosophy of Ministry(목회철학)
- Korea**
 - April 22-26(4월 22 - 26일)
 - DI831 History of Missions(선교역사)

Grace Theological Seminary

200 Seminary Dr, Winona Lake, IN 46590 / http://www.grace.edu

총장: Dr. Ronald Manahan
한국학부 디렉터: Dr. Stephen S. Park(박사경박사)
대표전화: 574-372-5100 (Ext.: 6335), 574-377-2619(한국어)
E-mail: parkrc@grace.edu, gtskoreanstudies@gmail.com

종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인도의 가르왈리(GARHWALI)



4천여 년의 역사를 가진 문화와 세 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인구를 소유한 인도는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많은 민족들로 이루어져 있다. 수천 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 셀 수 없는 종족들은 인도로 이주해왔고 그들 중 많은 종족들은 독특하게 구별되는 문화를 유지해 왔다. 오늘날 인도에서는 800개 이

상의 언어가 사용되고 있으며 복잡한 힌두 카스트제도가 사람들을 셀 수도 없이 많은 사회계층들로 나누었다. 중부 파하리라고도 알려진 가르왈리는 인도에 있는 많은 힌두 민족 중의 하나이다. 그들은 주로 우타르 프라데쉬 주와 카쉬미르 주에 거주한다. 이 지역은 험한 산악지역으로, 이 지역의 길들은 히말라야의 바깥쪽 산비탈을 둘러싸고 있어 노새들이 겨우 지나갈 수 있는 좁은 길뿐이다. 이들은 열심히 일하는 종족이며 자주 고립되는 종족이다. 그들의 마을 중 많은 수는 1년에 4달 동안 눈으로 덮여있으며

사람들은 비축해 놓은 것을 먹고 살아야 한다.

삶의 모습

가르왈리 사람들 대부분은 가난하며 정직한 농부들이다. 그들이 경작한 산하리의 땅에서 1년에 두 번 충분한 농작물을 수확할 뿐이다. 기본적인 농작물은 감자와 쌀이며, 다양한 야채들 역시 재배된다. 비료가 사용되며 땅을 묵혀둘 수 있도록 하는 경작지 순환 농법도 사용하고 있다. 논벼는 몬순 계절 동안 자라는 반면 밭벼, 옥수수, 수수, 밀 등은 여름과 겨울 동안 좀 더 마른 땅에서 자란다. 농부들 대부분은 고기를 얻기 위해 몰소와 염소를, 우유를 얻기 위해 젖소를 키운다. 마을 사람들은 우유, 렌즈콩, 약간의 야채와 과일도 된 간단한 식사를 하고 가끔씩은 고기를 곁들여 먹는다.

이들은 마을에서 대가족을 이루며 마을에는 농지로 둘러싸인 곳에 집들이 적당한 간격으로 모여 있다. 마을은 일반적으로 강이나 시냇물 주변에 위치하며, 집들은 좁은 길로 연결되어 있다. 때때로 큰 나무 주위에서 길들이 서로 만나며, 그 큰 나무 주위는 마을 사람들이 만나는 장소나 여행자들이 쉬는 장소로 사용되어진다. 집들은 직사각형 모양이며, 나무 기둥으로 받쳐진 벽은 돌과 회반죽으로 만든다. 지붕은 슬레이트, 나무, 이엉으로 만들어진다. 문과 창문, 문틀은 대개 정성스레 조각되고 그림이 그려져 있다. 집들은 보통 2층, 혹은 그 이상으로 지으며 사람들은 2층에서 살고 1층에서는 동물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닌다. 종교적 축제나 마을 축제 기간 동안 여자들은 밝은 색상의 옷을 입기 좋아하며 으로는 만든 두꺼운

코걸이와 귀걸이를 하고 다양한 색의 머리 스키포를 두른다. 첫 쌀밥 먹이기와 첫 이발과 같이 아이들에게 하는 많은 통과례가 있다. 또한, 소녀들은 사춘기의 식을 통과하며 소년들은 "신성한 실 의식"(sacred thread ceremonies)으로 알려진 입문식을 통과한다. 아이들이 약 8세가 됐을 때 가정의 허드렛일을 하기 시작한다. 소녀들은 더 어린 아이들을 돌보고, 물을 길고, 동물들을 위한 사료를 나른다. 소년들은 가족들을 지키며 들일을 돕고 시장으로 우유를 나른다. 많은 아이들이 학교까지 하루에 5-6마일을 걷는다. 여자들은 들판 일의 대부분을 하며, 씨 뿌리고 밭을 갈고 잡초를 뽑으며 수확을 한다. 그들은 또한 아이들을 돌보고 집을 지키며 동물들을 돌본다.

신앙 사실상 가르왈리인들 모두 다 힌두교도들이지만 다른 힌두교 사회만큼 종교법을 준수하는데 그다지 엄격하지는 않다. 다른 힌두교도들과는 달리 가르왈리인들은 다섯 명의 판다바(Pandava) 형제들(힌두 서사시의 영웅 전사들)을 신으로 여긴다. 또한, 그들은 제물로 위령제를 지내야 하는 500개 이상의 신과 여신들을 숭배한다. 필요로 하는 것들 가르왈리인들에게 이용할 수 있는 기독교 자원들은 거의 없다. 현재 성경의 일부만이 그들의 언어인 테리어로 번역됐다. 기독교 라디오 방송과 영화 예수의 번역이 필요하다. 5개의 선교단체가 현재 그들이운데서 사역하고 있지만 그중 알려진 기독교인은 281명뿐이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미국인 절반 이상 "종교 자유 침해받고 있다"

미국인의 절반 이상이 종교적 자유가 위협받고 있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독교 전문 리서치업체 바나그룹은 미국 전역의 성인 1008명을 대상으로 종교 자유에 관해 설문조사한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의 51%가 "향후 5년 동안 미국에서 종교 자유가 더 침해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응답했다. '매우 우려'는 29%, '약간 우려'는 22%였다. 기독교인 중에 '매우 우려된다'고 답한 비율은 71%에 달했다.



전체 응답자의 33%, 기독교인의 60%는 "이미 지난 10년간 종교 자유가 악화됐다"고 답했다. 루이 기글리오 목사가 반(反)동성애에 발인 때문에 대통령 취임식 축하사에서 밀려난 것과 크리스천 기업인 하비 로비스가 직원들 건강보험료에 낙태 비용을 포함시키려는 오바마 케어(건강보험개혁법)를 거부해 거액의 벌금을 물게 된 것이 최근의 종교 자유 침해 사례로 꼽힌다.

북한기독교인 성경공부하러 중국가다 총살당해

미국의 국제기독교선교단체 오픈도어스는 최근 북한 한 기독교인이 성경 공부하러 중국으로 가던 중국

경지역에서 북한 경비병에 발각돼 총살당했다고 21일 전했다.



이 북한 남성은 돈벌이를 위해 수차례 중국을 드나들다가 탈북자를 돕던 오픈도어스 직원을 우연히 만나 기독교 신앙을 접하고 독실한 신자가 됐다. 고향으로 돌아가 가족에게 믿음을 전파한 그는 좀 더 심도 깊은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해 다시 중국에 가려다 북한 당국에 걸려 참혹한 죽음을 맞았다.

오픈도어스는 북한 내 강제노동수용소에서도 이달 초쯤 기독교인 한 명이 혹독한 고문과 노역, 굶주림에 시달리다 숨졌다고 밝혔다. 이 남성 역시 중국에서 신앙인이 돼 고향으로 돌아온 뒤 북한 당국에 발각된 경우였다. 오픈도어스 관계자는 "그는 북한으로 돌아가기 전 세례를 받으면서 '앞으로 내게 어떤 고난이 닥치더라도 기꺼이 감당하겠다'고 했었는데 그 말이 현실이 되고 말았다"며 안타까워했다. 오픈도어스는 이들 사망자의 신원과 수용소 위치 등 구체적인 사항은 유가족의 안전을 이유로 밝히지 않았다.

"근무중 십자가 목걸이 착용 이유 해고는 부당"

근무 중에 십자가 목걸이를 착용했다고 직장에서 해고당한 영국 여성이 유럽인권재판소(ECHR)에서 승소했다. 17일 AP 통신에 따르면 유럽인권재판소는 "브리타니시항공(BA)이 십자가 목걸이 때문에 직원인 나디아 이웨이다(60·사진)를 해고한 것은 개인이 종교를 드러낼 권리를 침해한 것이니 이웨이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BA에서 탑승수속을 담당하던 이웨이다는 2006년 십자가 목걸이를 벗으라는 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됐다. 이 일로 영국 내에서 종교 자유에 관한 논란이 촉발됐다. 결국 BA는 2007년 직원들의 종교 상징물 착용을 금지한 사규를 고치고 이웨이다를 복직시켰다. 하지만 이웨이다는 해고 기간 임금과 정신적 피해보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멈추지 않았고, 영국 법원에서 패소한 뒤 지난해 유럽인권재판소에 제소했다.

이웨이다는 승소가 확정되자 "예수님 감사합니다"라고 환호했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로 "직장에서 종교 상징물을 착용할 수 있다는 원칙이 인정돼 기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웨이다와 함께 소송을 제기했던 영국인 3명은 패소했다. 병원에서 십자가 목걸이 착용을 고수한 간호사 셸리 체플린, 동성 간 혼인관계 등 목업무를 거부한 호적담당 직원 릴리언 라벨, 동성커플에 대한 성적 장애 치료를 거부한 상담사 게리 맥팔레인의 부당해고 소송이 모두 기각된 것. 유럽인권재판소는 "병원에서 안전을 이유로 간호사에게 목걸이 제거를 요구한 것은 지나치지 않으며, 고용주는 직원의 종교 자유와 타인(동성애자)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할 자격이 있다"고 판시했다.

미국인 58% "공격용 총기 판매금지 찬성"

미국 국민의 절반 이상이 오바마 정부가 총기규제 강화 방안으로 내놓은 공격용 총기 및 대용량 탄창의 판매 금지 조치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싱턴포스트가 ABC방송과 함께 성인 1천17명을 상대로 실시해 16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58%가 공격용 총기의 판매 금지를 지지한다고 답했다. 이에 반대한다는 응답자는 39%였다.

공격용 총기 판매 금지법은 지난 2004년 효력이 중단된 바 있다. 10발 이상이 들어가는 대용량 탄창의 거래를 금하는 데 찬성하는 응답자도 전체의 65%를 차지했다. 연방정부 차원에서 모든 총기의 유통경로를 추적, 데이터베이스를 조성하는 방안에도 대다수(71%)가 지지 의사를 보였다.

백악 오바마 대통령은 코네티컷 주 뉴타운 샌디훅 초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여 만인 16일 총기 소지 및 사용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앞서 이달 10-13일 무작위 표본 추출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오차범위는 ±3.5% 포인트다.

해당 조사 결과 52%가 지난해 샌디훅 초등학교 총기 참사를 계기로 총기 규제를 더욱 지지하게 됐다고 밝혔다. 강력한 총기 로비단체인 미국총기협회(NRA)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인식(36%)보다 비우호적인 인식을 지닌 응답자(44%)가 많았으나, 학교에 무장경비원을 배치해야 한다는 이들의 주장에는 과반인 55%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CNN과 시사주간지 타임이 성인 814명을 상대로 14-15일 공동 실시한 여론조사(오차범위 ±3.5%포인트)에서도 55%가 총기규제 강화를 지지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응답자의 61%가 총기규제를 위해 새로운 법이 마련돼도 총기 폭력 사태는 계속 벌어질 것이라고 답했다. 신규 입법 조치로 총기 폭력이 멈출 것이라고 본 응답자는 39%에 그쳤다.

7살 초등생 배낭에 권총...학교 폐쇄 소송

뉴욕의 한 초등학교에서 17일 7살의 학생이 권총이 든 가방을 메고 등교한 사실이 알려지자 해당 학교가 일시 폐쇄되는 소동이 일어났다.



뉴욕타임스(NYT)는 뉴욕 퀸즈의 웨이브 프리퍼토리 초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소년의 가방에서 22구경 권총이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해당 학교는 일시 폐쇄됐지만, 경찰이 학교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곧 해제했다.

뉴욕경찰청 대변인인 폴 J. 브라운은 이 학생의 가방에서 권총과 실탄 10발이 채워진 탄창, 실탄 7-10발이 든 비닐봉지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 어린이는 이날 오전 7시 30분경 학교에 도착했으며 2시간 후 학생의 어머니가 아이의 가방에 총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학교로 달려갔다.

브라운 대변인은 "처음에 아이 어머니는 치과 진료로 핑계로 아이를 데려 가려 했다"며 "하지만 아이가 권총을 같은 반 친구에게 줬다는 이야기를 듣고 교장선생님에게 즉각 이 사실을 알렸다"고 말했다. 소식을 들은 학교 안전 관리자는 학교 전체를 수색했지만 결국 권총은 친구가 아니라 원래 학생의 가방에서 발견됐다.

이 어린이는 21세와 27세의 이복형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브라운 대변인은 "어린 학생의 가방에 누가 총을 넣었고 어머니는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 조사 중"이라며 학생 어머니의 기소 여부를 "아직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BOOKSKOREA PRINTING & PROMOTION

한국서적 프린팅 & 프로모션

교회 사역에 필요한 인쇄물과 판촉물을 한 자리에서 제작 할 수 있는 한국서적 프린팅 & 프로모션 사업부에서는 디자인에서 제작까지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완성하여 드립니다. (창립기념일,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부활절) 명함, 전단지, 브로슈어, 엽서, 스티커, 달력, 선물권, 헌금봉투, 전도지, 주보, 배너, 옥외 / 실내 스탠드배너, 전도용 작품제작 프린팅 단체 티셔츠, 타월, 토트백, 머그잔, 볼펜, 전도에 필요한 아이템에 모든것-



전화 : 718.762.1200 29-30 Union St, Flushing, NY 11354

미리 가보는 성지순례 예수님의 발자취 (3)

바다를 통한 외부 세계와의 접촉 역사 사론 평야가 발달하게 된 주요 원인이 됐다. 바다를 접한 주요 도시들은: Tel Mevorakh(143-215), Hopher(141-197), Tel Poleg(135-185), Tel Qasile(130-167), Tel Michal(131-174)이 있다. 대부분 모래언덕을 지난 강과 바다 근처에 발달했다. 돌(Dor)을 제외하고는 모두 강을 보호할 목적도 있어 무역과 함께 전략적인 이유로 발달했다.

헤롯의 통치와 로마시대에 사론 평야는 크게 변했다. 헤롯은 12년(22-10BC)에 걸쳐 신도시 가이사라를 건설하고 이곳을 사론 평야의 중요한 항구 도시로 발전시켰다. 그래서 헤롯시대 이후로 가이사라를 중심으로 새로운 길들이 형성 발달했다. 로마의 발달된 건축도로 도로들은 포장됐고, 사론 평야의 남북, 그리고 동서로 많은 지방 도로들이 건설됐다.

사론 평야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은 이집트의 18왕조부터 나타난다. 아멘호텝 2세(Amenhotep II/ANET 245-247)의 기록에 의하면 그는 많은 말과 소, 무기, 전차, 전쟁 포로들을 사론의 아벡, 소고, 야합, 미그달렌(Tel Zeror)에서 전리품으로 탈취했다. 아멘호텝이 점령했던 도시들은 모두 이스라엘 평야 또는 사마리아 중앙 산지로 향할 수 있는 중요한 곳에 위치한 도시들이다. 아마르나 문서에도 사론에 대한 기록이 있다.

당시 이집트는 이집트와 시리아를 연결하는 중요한 지역인 사론 평야를 다스리고 있었는데 19-20 왕조에 이르러 사론 평야에 대한

군사, 문화, 정치, 경제적인 관심이 크게 커졌다. 당시 이집트는 아벡을 이집트의 주요 군사 지역으로 만들어 사론 평야를 철저히 통치했다. 사론 평야의 남쪽 블레셋 평야에서는 가사가 이집트의 주요 군사 지역이었다.

이집트 20왕조 즉 주전 12세기 중반에 이르러 사론 평야에 대한 이집트 영향력은 크게 쇠퇴했다. 이집트의 팔레스틴에 대한 영향력이 줄어든 것은 팔레스틴 주변 국가들에 대한 정치와 사회의 변화와 관련이 깊다. 해양 민족의 출현, 이스라엘 출현, 이집트의 정치적 불안, 이런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얽힌 결과이다. 블레셋의 대표적인 도시는 Tel Qasile와 Dor(Tjeker)가 있다. 이스라엘 정착 시대에 사론 평야의 모습은 성경에서도 읽을 수 있다(수 12, 17:11-13, 사 1:27-28).

솔로몬의 행정 구역에서 사론 평야의 대부분은 세 번째 구역에 해당한다(왕상4:10). 칼라이(Kallai)는 솔로몬의 네 번째 구역을 돌(Dor) 지역으로 이해한다(왕상4:11). 사론 평야의 쇠퇴는 블레셋을 공격하기 위한 디글랏 빌레셋의 군사적 원정과 관련이 있다(주전 734년). 그러나 사론 평야의 중요한 점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중요한 도시들이 발달한 것이다. 특히 헤롯 당시에 사론 평야는 네 도시를 중심으로 발전했다: 아벡(Antipatris), 아폴로니아(Apollonia), 가이사라(Caesarea), 그리고 돌(Dora)이다.

역대상 27:29에 대해 많은 학자들은 그 시대를 솔로몬 이전인 다윗의 행정적인 구조로 이해한다. 사론 사람 시드래(Shitrai)는 사론

지역을 다스리는 관리로 임명됐다. Rudolph는 사론의 가족들은 팔레스틴의 여러 지역으로 수출됐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사론 사람이란 사론 출신을 의미하며 또한 가족을 잘 다루는 사람을 뜻하는 말로도 표현됐다. 또한 사론은 비옥한 것(아2:1, 35:2), 척박한 것(사33:9) 그리고 목축(사65:10)에 대한 여러 측면을 갖고 있다.

사도행전 9:35절에서는 사론 지역에 인구가 크게 밀집되었음을 느낄 수 있다;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와..." 여기서 "...에 사는 사람들이 다"라는 표현은 가이사라 신도시의 건설로 말미암아 새롭게 형성된 많은 도시들에 사는 사람들이란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다.

4. 블레셋 평야

중간에 있는 낮은 구릉 지대에 있던 아모리 사람의 성읍이다. 에그론의 왕 드빌은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평화를 이루자 기브온을 치기 위해 결성된 동맹에 가담했다. 여호수아는 관련된 다섯 왕을 죽이고 그들을 기둥에 매달았으며



나중에는 에글론을 함락시키고 그 주민들을 멸망시켰다(수10:1-5, 22-27, 34, 35; 12:12) 그 후 에글론은 유다 지파의 영토에 포함됐다(수15:39). 이후 단 지파에게 분배된 곳이었으며(수19:43) 이스라엘의 법계가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곳이었다(삼상5:10-6:16). 엘리야 시대에는 이곳에 바알세뭇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왕하1:2-16). 이곳은 BC7세기 말에 앗수르에게 점령당한 이후 역사에서 사라진다.

가드는 블레셋의 5대 주요 도시 가운데 하나로 이곳의 거주민들을 가드 사람(삼하6:10-11; 15:18)으로 칭했다. 블레셋 평야의 북동 지역에 위치한 가드는 유대 언덕들의 서쪽 끝까지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었다. "포도주 짜는 틀"이라는 의미의 가드는 에그론과 함께 산지가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었고(수

13:1; 삼상5:7-10; 6:17; 17:52) 블레셋의 북동 경계 지역을 방어하는 요충지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가사와 가드, 아스돗에 남아 있는 거인족이었던 아나자손들은 쫓아 내지 못했다. 그러나 다윗이 어린 소년의 몸으로 블레셋의 대제사장에게 가서(삼상17:23, 41-51) 블레셋에 대해 승리를 하게 됐다(52-54). 얼마 후 다윗은 사울 왕의 시기로 가드로 도망해 은신한다. 이후 다윗의 군대에 보면 가드출신 군인이 600명이나 있었다(삼하15:18).

'아름다움'이라는 뜻을 지닌 읍바는 지형적인 이유 때문에 항구가 발달하지 못했던 이스라엘에서 약 4000년의 역사를 가진 가장 오래된 고대 항구도시이다. 읍바는 해변 길(Via Maris)의 주요 항구로 기능했다. 구약성경에는 단 지파 땅의 경계(수19:46), 솔로몬 왕이 읍바 항구를 통해 두로 왕 히람이 레바논으로부터 보내오는 백향목을 수입했으며(대하2:10-16), 요나는 다시스로 도망가기 위해 읍바에서 배를 탔고(은1:3), 바벨론 귀환 후 새로 짓는 예루살렘의 전 건축자 채로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수입해 들어오는 항구(스3:7)의 역할을 했다. 기독교가 예루살렘에서 사방으로 퍼지자 읍바는 기독교의 중요한 중심지가 됐다. 베드로가 이곳에서 이방인 전도를 시작했고, 죽었던 여 제자 다비다를 다시 살렸다(행9:36-43).

히브리어로는 "나할 미츠라임"으로 나일강과는 구별되는 곳이었으며 에글론의 명칭 사용은 유대의 남쪽 경계를 이야기할 때(민34:5; 수15:4, 47; 왕상8:65; 겔47:19; 48:28), 또는 이스라엘의 경계를 표현할 때 "에글론에서 큰 강 유브라

데까지"라고 표현된다(왕하24:7; 사27:12). 이 에글론은 가사에서 남쪽으로 약 80기로 떨어진 "와디 엘아리쉬"와 동일시되고 있으며 이 강은 시나이 반도 내륙의 고원지대로부터 흘러나와 거의 225km를 흐르는 강줄기이다.

야르콘강은 아벡 근처에서 발원해 지중해로 흐르는 강으로 길이가 약 30km 되며 사론 평야와 블레셋 평야의 경계선이 된다. 이 강의 지류는 실로에서 흘러오는 와디 실로와 아얄론 골짜기에서 흘러오는 와디 아얄론이 성경에서는 단과 에브라임 지파 사이 지역으로 나온다(수19:46).

지중해 해안선을 따라 형성된 해변 길은 가장 오래된 도로이다. 해변 길은 출13:17에는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 사19:23에서는 '에글론에서 앗수르로 통하는 대로'(the Highway out of Egypt to Assyria)인데, 후에는 해변 길(Via Maris)로 불렸다. 해변 길은 BC2000년 경 당시 두 강대국 에글론과 바벨론을 연결시켜 주는 대로였다. 에글론을 기점으로 북상 블레셋 평야, 사론 평야를 통과 이스라엘 끝까지를 횡단 하술, 다메섹을 경유 메소포타미아에 이르는 당시의 국제 간선고속도로였다.

해변 길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을 거쳐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왔던 아브라함이 우르를 떠나 하란을 거쳐 가나안에 들어갈 때 북부 해변 길을 따라갔으며(창12:5), 요셉을 사서 에글론 왕 바로의 시위대장 보디발에게 판 미디안 상인들이 이용한 길이 바로 이 해변 길이었다(창37:28). 야곱 역시 이집트의 총리대신이 된 요셉의 후광으로 이집트로 내려갔던 길도 해변 길이었다.

(8면으로 계속)

가정사역 칼럼

태 교 (胎敎)

김정진 사모 (FBM 디렉터)

많은 분들이 태교에 대해 이야기 하면 '태아가 알기는 뭘 알아'라고 반문하며 인격 형성에 중요한 시기를 놓쳐 버리곤 합니다. 그렇지만 의학박사 토마스베르니는 그의 책 '태아는 알고 있다'에서 태아의 경험과 그 경험이 인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세계적으로 승인된 임상 연구결과를 소개합니다. 그 연구결과에 따르면 어머니 자궁 안에 있는 아기는 듣고, 맛보고, 느끼고, 배울 수 있다고 합니다. 곧 태교를 통해 IQ를 높일 수 있다고 보고합니다. 그렇다면 태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의식, 무의식의 세계에 저장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산부들이 스트레스를 덜 받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가운데 태교를 하며 출산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좀더 밝은 세상을 만드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태교를 잘하고 나서 출산에 대해 생각해보려고 합니다.

출생
태아가 어머니의 자궁 속에 있다가 세상에 출생하는 경험은 생애에서 가장 충격적이고 극적인 경험이라



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태교를 통해 양분을 먹으며 편안하게 어머니의 자궁 안에서 양수 속에 있다가 어머니의 좁은 산도를 통과하며 어머니의 신음소리를 계속 들어야 하고 또 허파로 숨을 쉬어야만 하는 수많은 첫 경험들을 합니다. 어둠속에 있다가 밝은 곳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 태교에서 공급되었던 영양분이 아니라 힘들게 젖 또는 우유를 자신의 입으로 직접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면 거꾸로 들려진 채 엉덩이를 한 대 때려서 울리며 입속의 이

물질을 제거하고 첫 호흡을 하도록 하지요. 이처럼 신생아는 태어나면서 참 많은 스트레스를 겪게 되며 커다란 문화충격을 겪게 됩니다. 사실 산도를 통과하며 아기는 엄마와 첫 스킨십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고에 의하면 산도를 통과하여 자연분만한 아이들이 수술을 통해 태어난 아기보다 두려움이 적으며 삶에 대한 자신감을 더 많이 갖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기도 엄마와 함께 뽀뽀를 해내었다는 자신감을 갖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희부부는 임신부들이 출산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하고 순조로운 출산을 돕기 위해 태교 및 임신부 교실을 운영합니다. 임신 중인 부부들을 위해 태교의 방법, 태교의 결과, 출산과정, 모유수유의 좋은 점, 모유수유 방법 등을 다루는데 임신 중인 부부들이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출산에 앞

둔 부부들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과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이지만 태아도 스트레스와 두려움을 겪기는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태아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하여 출산을 앞둔 부부는 이렇게 태아와 대화하며 준비할 것을 제안합니다. "태아의 이름(태명)을 부르며 000야 '축복한다', '사랑한다', '엄마 아빠는 너 때문에 얼마나 행복하니'라' 등의 이야기를 해줍니다. 출산이 다가오면 '너는 언제쯤 세상에 태어나게 되는데...너는 졸고 어두운 엄마의 산도를 통과하게 될거야. 그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지만 우리가 호흡을 맞추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시간이 단축될 수도 있단다. 처음 하는 일이라 두려울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 잘해보도록 하자. 잘할 수 있을거야' 등으로 태아와 대화하며 격려하십시오. 사실 태아에게는 편안한 자궁 속에

있다가 세상에 버려지듯이 어려운 과정들을 통과할 때 두렵고 공포스런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출산 직후부터 아기와 함께
출산 직후부터 퇴원할 때까지 엄마와 아기는 함께 지내도록 하십시오. 이 시기는 호르몬의 영향으로 아기가 무엇을 원하고 어떤 신호를 보내는지 엄마가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임신부와 태어난 아기의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파스한 사람의 분위기가 필요합니다. 즉,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산모의 배위에 엮어서 태속에서 들던 엄마의 심장박동 소리를 듣고 맨살을 통한 스킨십을 갖게 하면 엄마와 아기는 더욱 애착관계를 잘 맺을 수 있습니다. 물론 아빠도 아기를 배위에 엮어서 애착관계를 돈독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013 희망찬 새해 추천도서

아브라함 카이퍼

윌리엄 B. 에드먼스 지음, 한국기독교정치연구소 옮김 | 424면 | 13,000원

사해 사본과 쿨란 공동체

본서는 사해 사본과 쿨란 공동체, 즉 유대 사회에서 떨어져 나와 따로 공동체 생활을 했던 분파와 그들의 거주지, 사해 사본의 관계를 고고학, 헬라 문헌, 그리고 사해 사본의 연구를 통해서 소개하고 있다. 구약성경, 특히 중간기 문헌의 대가인 존 콜린스 교수는 그의 해박한 지식과 식견을 바탕으로, 사해 사본과 쿨란에 존재했던 공동체의 관계에 대해 실태처럼 얽혀 있는 논쟁들을 하나씩 설명해 나간다. 본서는 쿨란에서 발견된 사해 사본들과 쿨란에 거주했던 공동체의 관계에 대해 관심이 있는 독자에게는 지금까지의 모든 논쟁과 그 문제점을 한번에 살펴볼 수 있는 책이라 할 수 있다.

존 J. 콜린스 지음 | 안창선 옮김 | 376면 | 13,000원

메소포타미아 신화와 유물이야기

김남철 지음 | 376면 | 20,000원

한글인터넷주소 쿨란, 쿨란출판사 · 홈페이지 www.qumran.co.kr · 주소 서울 종로구 이화동 184-3

창조과학 칼럼



최우성 박사
(생리학, 창조과학선교회)

122. 노아홍수 이전의 문명

'노아가 그렇게 큰 배를 만들 수 있었을까?'라는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노아 할아버지가 어떻게 방주를 만들었을까?"란 제목으로 칼럼을 쓴 기억이 있다. 노아 방주를 아마추어가 건조한 수준 낮은 배, 동물들로 우글거리는 작은 배였을 것으로 생각한다. 현재 과학과 기술이 점점 발달하기 때문에 진화론적인 패러다임이 과거에는 과학과 기술의 수준이 형편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든다.

그러나 놀랍게도 공학적인 계산과 모형실험결과 방주가 최고의 안정성을 가진 해상 건조물이었음을 여러 차례 보여주었다. 이 방주의 완벽성뿐 아니라 노아홍수 이후 고대세계의 7대 불가사의로 꼽힐 만큼 완벽하게 건축된 이집트 문명이 낳은 피라미드는 어떤가? 이 밖에도 메소포타미아, 인도, 황하, 임가, 아즈카 문명 등 세계 각 지역의 문명들은 원시적인 문명에서부터 점점 발달하지 않았고 바벨탑 사건 직후 갑자기 등장하였다. 이런 증거들은 노아홍수 이전의 과학과 기술이 형편없었을 것이라 진화론적인 상상과 어울리지 않는다. 또, 하나님은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창 6:6)하시면서 홍수심판을 하셨다. 노아홍수 이전의 문명을 알게 되면 그 이유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1. 무질서의 법칙으로 본 과거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되는 것은 스스로 점점 더 망가지는 것이다. 물질만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대를 이어 전해지는 정보도 망가진다. 물질로 되어 있는 생체정보인 유전정보도 대를 이어오면서 쌓인 돌연변이로 점점 망가지게 된다. 과학자들은 이런 우주적인 현상을 열역학 제 2법칙이라고 부른다.

이 무질서의 법칙은 인류의 나이를 통해서도 볼 수 있다. 노아홍수 이전에 900년 이상 살았던 사람들의 나이는 홍수직후에 450 근처로 떨어지고, 바벨탑 사건 이후에는 250으로 낮아지며, 그 이후에도 계

속 낮아져 모세시대에는 70, 80세가 보통이었다. 지난해 12월 5일자 CNN 기사는 당시 세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116세)이 사망했다고 전했다. 이 기사에는 116세 이상 살았다고 확인된 사람은 8명뿐이었으며 최고령자는 1997년에 사망한 122세의 프랑스 여성 Jeanne Louise Calment이었다고 했다. 최

가인과 그 후손들에 대한 기록(창4:16-24)은 노아홍수 이전의 사회 상황을 엿볼 수 있는 곳이다. 아담의 아들인 가인은 성을 쌓고 있었다. 인류의 도시화의 시작이 얼마나 일찍 시작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또 창조 후 600여 년 후에 살았을 아담의 7대손인 라멕은 일부일처제를 깨뜨린 최초의 인물이 되었다. 라멕의 세 아들 중 야발은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유발은 악기를 다루는 최초 조상이었으며, 두발가인은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였다. 두발가인이 만든 기구들은 다른 성경 번역에서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들었다고 번역하였다. 이는 여러 가지 유용한 발명품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중에는 사람을 해칠 수 있는 무기들도 있었음을 상상해 볼 수 있다.

3. 홍수 이전의 세상

진화론주의 고고학자들이나 인류학자들은 도시화, 농업, 축산, 청동기계 등은 석기시대로부터 수십만 년에 걸쳐 문명시대로 진화하면서 이론 진화의 산물들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실제로 사람들은 창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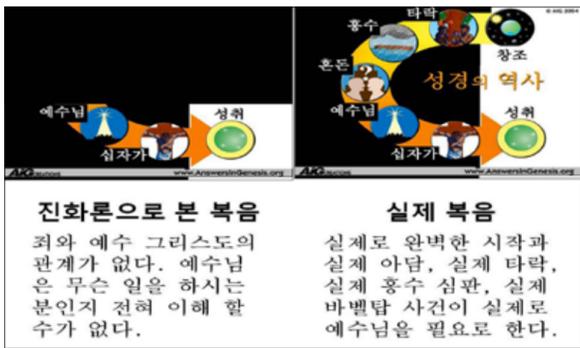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창6:5-7). "그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창 5:11).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창5:12).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들고 높은 수준의 과학 지식과 기술을 가졌지만 그들의 마음은 악했다. 더욱이 홍수 후에야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다스리는 법(창9:6)을 주신 것으로 보아 이 시대에는 강력한 공권력이 없는 무정부 상태였을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그 시대는 포악함(violence)이 가득하게 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의 하나님의 평가와 결정이 다음과 같았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창6:5-7).

4. 반 복음적인 진화론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다.

창조 후 1500여년 지난 노아시대 과학기술은 오늘날 '첨단' 문명에 버금가 고대문명들은 원시문명서 발달한 게 아니고 바벨탑사건 직후 갑자기 등장



근 의학발달로 평균나이는 크게 증가 하고 있는데도 최고령자의 나이는 왜 점점 줄어들고 있을까?

과학자들이 발견한 예외 없는 법칙인 열역학 제 2법칙 즉 무질서의 법칙을 보거나 계속 쌓여만 가는 돌연변이와 그 효과 등을 볼 때, 사람들의 지능도 점점 낮아지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모든 것이 무질서해지고 있다면 과거로 거슬러 올라갈수록 점점 좋았다는 말이 되고, 결국 창조될 당시에 가장 완벽했다는 성경의 주장이 과학적 논리에 전혀 손색이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높은 지능을 가졌을 뿐 아니라 현재보다 10배 이상 오래 살았던 초기 인류는 아주 빠르게 문명을 발전시켜 나갔을 것이다.

2. 가인 계열의 문명들

후 10세대가 지나기 오래 전에 이미 앞에서 설명한 놀라운 문명을 기록했음을 알 수 있다. 이 기간 동안에는 기록된 언어도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 창세기 5장 1절의 "계보"라는 말이 영어로는 the book of the generations라고 되어있다.

그러므로 사람을 비롯해서 모든 환경이 완벽하게 창조된 후 1500여 년이 지난 노아시대의 과학기술의 수준은 오늘날 우리들이 소위 '첨단'이라고 부르는 과학과 기술 문명에 조금도 뒤지지 않았을 것이다. 물론 과학과 기술은 환경에 맞게 발달하게 마련이므로 지금과 다른 종류의 과학과 기술이 발달하였을 것이지만 현 세상에서도 유용한 지식과 기술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다.

노아홍수 직전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보자. "여호와께서 사람의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은 사실적인 죄와 죄의 형벌에 있다. 실제로 있었던 완벽한 창조에서 시작하여 실제로 있었던 아담의 범죄와 심판으로 인한 환경과 인류의 저주, 실제로 있었던 노아홍수 심판으로 세상의 멸망, 실제로 있었던 바벨탑 사건으로 인한 인류의 갈등(인류의 분산으로 인해 생겨난 나라와 백성과 인종의 문제들) 등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필요하게 된 이유다.

그런데 수십억 년의 긴 시간에 기반을 둔 진화론을 수용하거나, 혹은 진화 자체는 부정하더라도 이 장구한 기간을 인정하거나, 진화의 과정으로 창조가 진행되었다는 것을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될까? 이런 경우에는 사람이 존재하기 오래 전부터 죽음이 있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므로 성경이 말하는 핵심 주제인 죄와 죽음(롬5:12)의 관계가 사실이 아니게 된다. 그러므로 진화론이나 진화론의 영향을 받아 성경의 창조에서 벗어난 모든 형태의 창조이론들은 결국 복음의 사실성과 필요성을 제거하게 되고 교회에 심각한 악영향을 주게 된다.

진화론을 먼저 수용한 영국과 유럽, 일본, 그리고 나중에 수용한 미국의 교회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메일: mailforwschoi@gmail.com

성품칼럼



이영숙 박사
(좋은나무성품학교 대표, 교육학박사)

성품리더십(15)-감사는 인생의 숨겨진 보물

대학졸업을 앞둔 예쁘고 공부 잘하던 여대생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도서관에서 공부를 마치고 귀가하는 중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전신 중 55퍼센트가 3도 중화상으로 일그러지고 흉측하게 변했습니다. 의사들도 포기한 상태에서 여러 차례 수술을 견뎌내고 자활에 성공, 일본에 이어 미국에서 박사학위 과정을 밟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말하는 그녀는 이지선입니다.

그녀는 "저는 짧아진 여덟 개의 손가락을 쓰면서 사람에게 손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게 되었고 1인 10억을 해내는 엄지손가락으로 생활하고 글을 쓰면서 엄지손가락을 온전히 남겨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눈썹이 없어 무엇인든 여과 없이 눈으로 들어가는 것을 경멸하며 사람에게 이 작은 눈썹마저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알았고 막대기 같아져 버린 오른팔을 쓰면서 왜 하나님이 관절이 모두 구부러지도록 만드셨는지, 손이 귀까지 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깨달았습니다. 온전치 못한 오른쪽 귓바퀴 덕분에 귓바퀴가 귀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정교하게 만들어 주신 거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무엇보다 건강한 피부가 얼마나 많은 기능을 하는지, 껍데기일 뿐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던 피부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남겨주신 피부들이 건강하게 움직이는 것에 감사했으며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얼마나 정교하고 세심한 계획 아래 만드셨는지 온몸으로 체험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이치선씨처럼 어렵고 힘들어 보이는 삶에서도 감사를 찾아내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감사는 인생의 숨겨진 보물과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더 큰 감사를 만드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감사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 인정하고 말과 행동으로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좋은나무성품학교는 정의합니다. 고난과 아픔이 어떤 사람에게는 재앙으로 다가오지만 감사의 성품을 소유한 사람에게는 축복으로 돌아옵니다.

"인간은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라고 고대 그리스 철학자인 에픽테투스는 말했습니다. 내 힘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인내'로 변화시키고, 바꿀 수 없는 것은 과감히 '감사'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바로 행복의 비결이 됩니다. 감사함으로 받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버릴 것이 없는 새로운 행복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지요.

감사는 선택입니다. 수많은 환경 속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습관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감사로 표현할 것인지, 짜증과 낙심으로 표현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감사와 불평의 기로에 섰을 때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성공을 만드는 성공자입니다.

(7면에서 계속)

가나안의 여러 도시들은 해변 길을 중심으로 발달했으며 이곳은 팔레스틴의 술한 역사의 현상이 됐다. 이 도로를 중심으로 발달했던 팔레스타인 지역 도시들은 다음과 같다.

- 1)가사(Gaza): 헬라어로는 가자이며 현재의 가자지구에 해당 된다(수10:41).
- 2)아스돗(Ashdod): 블레셋의 5대 성읍중 하나이다(수11:22, 수13:3).
- 3)아벡(Aphek): 사룬평야에 위

치한 고대 성읍이다(수12:18 삼상 29:1).

4)므깃도(Megiddo): 이스라엘 계곡의 서쪽 경계에 위치하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이스라엘의 고대 도시이다(수17:11, 계16:16).

5)하솔(Hazor): 갈릴리 호수 북쪽 14km지점에 있었던 BC2000년경에 가나안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무역 중계도시였으며 현재의 텔-엘-케다이다.

모나리자 스킨케어

년말연시 새해를 맞이하여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상품권 \$30, \$50, \$70, \$100등으로 준비했습니다.
-60세이상 권사님 교인들께도 특별할인 서비스 해드립니다.
***사위시설 완비 (*두피 클리닉)**

리프팅/화이트닝케어	1회	\$40	\$35	10회	\$350	\$300	1회 FREE
여드름 케어	1회	\$50	\$40	10회	\$400	\$350	1회 FREE
팔슬림 케어(스페셜 기계도입)	1회	\$40	\$35	10회	\$350	\$300	1회 FREE
등 경락	1회	\$50	\$40	10회	\$400	\$350	1회 FREE
배 경락	1회	\$40	\$35	10회	\$350	\$300	1회 FREE
전신 경락	1회	\$200	\$150	10회	\$1500	\$1250	1회 FREE
Aqua Therapy	1회	\$250	\$200	10회	\$2000	\$1800	1회 FREE

모나리자 스킨케어 *1회 케어도 환영합니다.
1134 S. Western Ave 2F. #B4.
Los Angeles, CA 90006
Office (323)737-7221 / Cell(213)321-7137

전임부교역자 청빙

남미 파라과이에 있는 아순시온 교회에서 전임 부교역자를 청빙합니다.

지원자격
정규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목사로서 스페니쉬 가능자 우대

제출서류
이력서 및 개인소개서
최근 설교 동영상 혹은 CD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전형방법: 서류 심사후 개별통지함
제출 기한: 2013년 2월28일
제출 처: iglesia-asuncion@hotmail.com
Lomas Valentinas 1460 Peru,
Asuncion Paraguay
TEL. +59521210029

파라과이 아순시온교회
담임목사 정정연

기사제보와
문서선교
후원을
바랍니다.

45개국에
복음의
전파
를
돕습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
은

LA.
Tel. (323)665-0009
Fax.(323)665-0056
NY.
Tel. (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LA@chpress.net
NY@chpress.net

제 6회 올네이션스연합기도 컨퍼런스 글로벌다민족국제선교 주최, 27일 산호세

글로벌다민족국제선교 Global International Missions(GIM, 대표 정윤명 목사)이 주최하는 미국과 열방의 회복을 위한 제 6회 올네이션스연합기도 컨퍼런스(All Nations Intercessory Union Prayer Conference)가 오는 27일(주), 오후 6시부터 북가주 산호세에 위치한 미국주류교회인 Central Christian Church에서 개최된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대하7:14) 주제로 북가주에 위치한 미국 주류 교회를 비롯한 한인교회와 여러 민족교회 등 30여 민족이 연합해 갖게 되는 이번 기도 컨퍼런스에서는 특히 미국의 회복을 위한 특별기도 선언문(10기도문)도 채택한다. 산호세지역 연합회장이며 선교 전략가인 Sam Earp 목사, 중국교

회 Timothy Su 목사, 에티오피아의 Teshome Almaz 박사, 루마니아 Laurian Lazarescu 목사, 인디아 Abraham Philips 목사 등이 준비위원으로 섬기고 있으며, 한인교회는 산호세은누리교회(담임 김영련 목사)를 비롯해 산호세를 중심으로 베이 각 지역에서 참여하게 된다. www.visionGIM.org ▲문의: (925)639-9527/(925)988-9191



크리스천비전 신문사 창간축하예배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사명 속에서 전진, 하나님의 새 역사 기대” 크리스천비전신문 창간축하예배

크리스천비전신문(사장 이정현 목사) 창간축하예배가 18일 오전 11시 미주평안교회(담임 송정명 목사)에서 열렸다. 송금관 목사(편집부장)의 사회로 시작된 이날 예배는 우대권 목사(이

사가 대표기도를, 진유철 목사가 ‘문제가 아니라 사명을 상대하면 이깁니다’(롬8:31-37)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다. 진 목사는 “신문 창간은 쉬운 일이 아니다. 사명 속에서 전진한다면

놀라운 하나님의 새 역사가 일어난다. 하나님의 복음전하는 비전신문이 어려움 있더라도 하나님이 거하신 믿고 전진하여 위대한 새 역사 만드는 신문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설교에 이어 신종은 목사(풀러턴 제일교회)가 권면을, 신현국 박사(복음대학교 총장), 스티브 황보 시장(라팔마 시장), 서인실 회장(세계기독교인연합회)이 축사를, 이수정 이진미 집사가 특송을 했으며 이정현 사장이 위촉패 및 감사패 전달 시간을 가졌다. 이어 박용덕 목사(크리스천비전 이사장)이 인사말을 했다.

이날 예배는 송정명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크리스천비전신문은 미주지역에 창간한 14번째 기독교인이며 현재 LA지역에서 활동하는 7번째 신문사이다. (박준호 기자)

도미니카공화국에 열방대학 개강 “이방 공동체를 변화시킨다” 기술교육

황폐한 지역사회를 풍요한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개발시키고자 Community Development D.T.S가 세워진다. 그리스도가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목수의 직업을 가지고 가족과 공동체 속에서 성장하여 공생애 동안 제자들을 모으고 공동체를 이루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가르쳤고 사도바울은 텐트를 만들며 이방 공동체 속에 들어가 그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교회를 세웠던 것처럼 도미니카공화국의 열방대학도 그곳에서도 각자가 가진 기술과 직업, 삶의 노하우를 가지고 황폐한 지역 사회 속으로 들어가도록 훈련받게 된다.

변화시키며 공동체가 자립, 자치, 자생하여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으로 자라나게 할 것”이라고 말한다. 도미니카 공화국에 D.T.S를 시작하는 목적을 묻자 “사람을 모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게 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장하도록 고취하고 개발시키는 것”이라고 말한다. 또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배우고 함께하는 능력을 연마하며 선교단체나 지역교회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특히 미전도 종족에 대한 헌신을 강화하고 가난한 자를 돌보고 사회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곳 열방대학에서는 자연농, 컴퓨터와 아이티, 보건, 정비, 영어교육, 미용, 재봉 등 실질적인 삶에 필요한 기술들을 익힐 수 있다.

본 열방대학의 학교 일정은 4월 25일부터 7월15일까지 12주 동안 강의를 듣고 7월16일부터 9월7일까지 전도여행을 실시한다. 학비는 외국인인과 카리브해 현지인이 약간의 차이가 있다.

자세한 것은 www.ywamdh.com에서 볼 수 있으며 (323)775-4791, (213)247-9116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성자 기자)



도미니카공화국에 열방대학 개강소식을 들려주는 허승호목사(미주 디렉터)

본사방문

“노병은 죽지 않고 시명은 은퇴가 없다”

미주목자교회 2월3일 오후 3시 설립감사예배

은퇴 후 예배드릴 곳이 마땅치 않아 가슴앓이를 해야 하는 원로 목사나 은퇴 전도사와 선교사들, 그리고 무임목사들을 위한 ‘미주목자교회’가 타운에 설립된다.

이미 10여 년 전 한국 CTS TV 목자교회’를 설립했고 이후 올림픽공원 옆에 오문목자교회를 또 다시 개척하여 두 곳에서 원로와 은퇴목사들 무임목사들을 섬기는 독특한 목회를 이어왔던 박천일 목사가 이번에 미주지역에도 설립에 앞장서고 있다.

박 목사는 원로나 은퇴목사들의 상황이 미주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감안하여 일 년 전부터 이곳에서도 모임을 가져오던 중 오는 2월3일 오후 3시 3407 W. 6th St #806에서 미주목자교회 설립예배를 드린다.

본 교회는 설립예배에 앞서 박천일 목사를 감사로 2월1일-3일 까지 ‘새 출발 부흥성회’를 개최한다.

미주목자교회 설립을 앞두고 본사를 찾은 이길조 선교사, 김철수 목사, 심진구 목사는 앞으로 미주목자교회 함께 동사목사로 섬기게 된다.

특히 이길조 선교사는 감리교 목사로 한국에서 사역하다 1988년 칠레로 파송 받아 칠레 선교

사로 ‘라이마선교회’를 구성 헌신해 왔다. “칠레에서 뼈를 묻으려고 했는데 이곳으로 옮겨가게 해 주셔서 4차례 금식기도 후 강권적인



본사를 방문하여 목자교회를 소개하고 있는 좌측부터 김철수, 이길조, 심진구 목사

하나님의 역사로 이곳으로 왔다”고 말하는 그는 “후임자에게 맡기고 온 라이마 선교교회와 함께 손잡고 이곳에서 사역을 펼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라이마선교회의 사역은 라틴아메리카 전 지역의 방대하고 다양한 터전을 일구며 사는 원주민들과 라틴계 이주민들을 그리스도의 가족과 한 형제로 맞이하여 그들을 복음화하고 증인의 사명자로 세우며 자신들의 흠여져 디아스포라 된 정체성 자각 등 적합한 훈련을 통해 그들의 나라와 부족

들의 지도자로 세우는 다민족 자국민 선교운동을 위해 앞장 서왔다.

미주목자교회는 이길조 선교사, 김철수 목사, 심진구 목사가 각각의 달란트를 모아 함께 주의 일을 이루어갈 예정이며 앞으로 미주 목자교회가 미주 지역마다

설립되어 이곳에 사는 은퇴목사와 원로, 무임 목사들이 각 각 맡아하며 말씀을 전하고 마지막까지 자신들에게 주어진 주의 종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이 앞으로의 꿈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길조 선교사는 이곳에서 스페니시 강의를 하고 있다. 한인들이 스페니시를 익힘으로 한국커뮤니티와 히스패닉의 조화를 이루어 함께 나아가기를 꿈꾸고 있다. (이성자 기자)



오파발로 현지인들과 선교팀원들이 기념촬영

LA은혜교회, 에콰도르 단기선교 성료 오파발로 지역 미전도종족 전도 성공

LA은혜교회(담임 최요셉 목사)는 1월 13일부터 18일까지 26명으로 구성된 선교팀과 함께 마야문명의 인디오들이 살고 있는 에콰도르 오파발로 북부지역으로 단기선교를 다녀왔다.

오파발로 지역은 16세기 이후부터 스페인의 노예제도에 아래 있었으며 대학살이 일어났던 지역이다. 그 일로 외부인과의 접촉을 꺼리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미전도종족이다.

이 미전도종족을 향한 것은 LA은혜교회 최요셉 목사가 에콰도르를

여행하던 중 그곳 주창 타카곤 하신도의 아들 환(현지 택시기사)과의 만남이 계기가 됐고 세계선교의 꿈을 안고 있던 최요셉 목사는 미전도종족을 위한 선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임을 확신하고 선교여행을 준비했다.

금번 에콰도르 선교에 동참한 단원은 총 26명으로 이들은 12주간에 걸친 선교훈련으로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선교로 진행했고 선교기간 동안 수많은 원주민들이 최초로 복음을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다.

특히 금번 선교팀은 매일 집회를 통해 그들의 발을 씻겨주며 사랑과 섬김의 모습을 보였고 치과 사역을 포함한 의료선교와 안경사역, 건축사역, 미용사역, 구제사역과 어린이 성경학교를 실시했다.

뿐만 아니라 2,500여명이 사는 부족가정에 따뜻한 겨울이 되도록 이불을 선물하기도 했다.

금번 선교를 마친 팀원들은 이곳 원주민들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기 위해 ‘제1기 오파발로 미션’모임을 결성하고 선교의 불씨를 이어가기로 다짐했다. (기사제공: LA은혜교회)

JoyLA.com Sale

추제별성서대전 80%OFF

정가 \$750.00 세일가격 \$150.00 +Tax

32 Set 한정특가판매(1set 12권)

이끼완벽 성경 성구 대전 (전7권)

save 69% 정가 \$758.00

세일 가격 \$235.00 +Tax

1권:가~납사 2권:다~롯 3권:뫏가~소위 4권:소유~오늘 5권:오늘날~종 6권:종교~히데겔 7권:판람

1. 개역한글성경의 성구를 빠짐없이 완전히 수록 2. 해당성구를 완전한 인용 3. 한글성경 성구들이 이해 해당하는 원어와 철저히 비교하여 말씀의 근원적 이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작

2013 미주용 다이어리 신청하세요

다이어리 커버에 교회이름 인쇄, 수첩 안에는 필요한 내용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수첩커버에 100부 이상은 무료로 인쇄해 드립니다(단 10월 31일까지 주문에 한함). 50부 이상 100부 미만은 인쇄비 권당 50센트씩 추가됩니다.

<p>미주판 2013 Immanuel</p> <p>다양하고 실용성 있는 내용과 세련된 디자인 크리스천이라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큐티를 결합 임마누엘 미주판 2013다이어리!</p> <p>1-50 권은 \$6,50 51-99 권은 \$6,00 100권 이상은 \$5,50</p>	<p>2013 Agape Partner Diary 미주판</p> <p>고급스런 표지와 세련된 디자인, 활용하기 쉽도록 구성된 미주전용 Contents! 교사용, 구역장용, 성가대용으로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필수 Gift 아이템입니다.</p> <p>1-50권은 \$650 51-99권은 \$6,00 100권 이상은 \$5,50</p>
<p>2013 하이움 다이어리</p> <p>30년 동안 목회자, 구역장, 교사들의 친구한 사역 도우미! 미주생활 안내가 기재되어 더욱 편리합니다.</p> <p>1-5-권은 \$6,25 51-99 권은 \$5,75 100권 이상은 \$5,25</p>	<p>미주판 2013 Qurman Christian Diary (Medium Size)</p> <p>다양하고 짜임새 있는 Contents로 구성된 미주판 다이어리! 목회자분과 구역장, 교사분 들을 위한 실속 있는 구성!</p> <p>1-50 권은 \$5,50 51-99 권은 \$5,00 100권 이상은 \$4,50</p>
<p>미주판 2013 Qurman Christian Diary (Large Size)</p> <p>다양하고 짜임새 있는 Contents로 구성된 미주판 다이어리! 목회자분과 구역장, 교사분 들을 위한 실속 있는 구성!</p> <p>1-50 권은 \$6,50 51-99 권은 \$6,00 100권 이상은 \$5,50</p>	<p>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2013</p> <p>2013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다이어리 Experiencing GOD diary! 목회자, 제직, 교사, 성가대, 구역장의 사역필수품!</p> <p>1-50 권은 \$6,95 51-99 권은 \$6,55 100권 이상은 \$6,00</p>

동부교계 기사판



“이전 것 잊고 사랑하고 협력 다짐”

필라교협 신년기도회와 하례회 성료

대필라델피아지역 한인교회협의 회(회장 박동배 목사)는 지난 13일 오후 6시 몽고메리교회(담임 최해

찬을 준비한 몽고메리교회에 감사하며 동포사회가 모든 행사에 동참해서 코리아의 위상을 높이자"고 전했다.

1부 예배는 이정철 목사(부회장) 사회, 서장석 장로(제2부회장) 기도, 안영균 목사(서기)의 성경봉독(눅 17:1-10) 후 몽고메리교회 찬양대의 찬양에 이어 “이제 돌아가지요”라는 제목으로 박동배 목사가 설교했다.

박 목사는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가 이전 것을 잊고 사랑과 화합으로 협력하자”고 역설했

다. 이어 한인사회와 한인교회를 위해 손석배 목사(부서기), 조국과 교회와 복한을 위해 차명훈 목사(실행위원), 미국과 해외 동포와 선교사와 세계평화를 위해 박성일 목사(실행위원)가 각각 기도회를 인도했으며 최해근 목사(실행위원) 축도로 마쳤다.

2부는 박도성 사관(음악분과위원장) 사회로 필라델피아 김덕수 회장의 대통령 신년사, 송중근 한인회장 신년사에 이어 이명숙 한미재단 전국총회 부회장이 미주한인의 날을 소개했고, 활의촌 목사(미기총회장) 축사 후 32회기에 수고한 이대우 목사, 박상욱 장로에게 감사패를 증정한 후 권영섭 목사(원로목사회장) 축도로 마쳤다.

(기사제공: 필라교협)



미주한인여성목회자협 제 3차 리더십 세미나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한미 글로벌 지도자의 첫 단추” 주제 미주한인여성목회자협 제 3차 리더십 세미나

미주한인여성목회자협의회(회장 이미선 목사)가 주최한 제 3차 김경옥 교수 초청 글로벌 리더십 세미나가 지난 21일 뉴욕순복음연합교회(담임 양승호 목사)에서 열렸다.

강사 김영옥 교수는 이화여대를 졸업하고 무디성서대학, 휘튼 대학원(MA, CE), 골든게이트침신(D.Min)에서 공부하고, 골든게이트침신대 교수로 사역하고, 지난해 은퇴했으며 명예교수로 강의를 계속하고 있다.

김영옥 박사는 “한미 글로벌 지도자의 첫 단추”(요8:32)라는 주제로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열강했다. 김 교수는 인간의 안다는 것의 문제점: 하나님의 뜻과 인간 생각의 불일치, 우리가 잘했다고 한 것까지도 하나님의 완전결함 앞에서 우리는 갈레조각에 불과하다, 문화와 가치, 영성의 필수 기초, 영성과 믿음과의 관계 등에 대해 사역 경험을 섞어 강의했다.

세미나에 앞서 드린 예배는 배임순 목사 사회로 기도 오명의 목사, 특송 최정민 사모, 설교 최애신 뉴욕목사회 회장, 광고 이은혜 목사, 축도 이미선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최애신 박사는 “소명을 받은 사람들”(갈1:11-17)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에 의해 나의 삶에 결정적 의미가 부여된다”며 “목회현장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양들의 소리를 듣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소명에 살며 사명으로 행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기름부음이 각 사역현장에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매일 모임을 갖는 동 협회는 2월 11일(월) 에버그린장로교회(담임 김금옥 목사)에서 정기모임을 갖는다. 또 매년 개최하는 목회자 컨퍼런스는 6월 17일부터 20일까지 캐나다 토론토에서 갖는다.

(유원정 기자)

필라기독교방송국 신임이사 4명 영입

필라델피아 기독교방송국(사장 전영현 목사)이 지난 15일 이사회(이사장 서장석 장로)를 열고 1차로 4명의 운영이사들을 영입키로 결의했다.

신임 운영이사 명단은 다음과 같다. 박상익 장로(clc교회, 필라델피아전회장), 김혁기 장로(소망장로교회, 필라기독교실업인협회회장), 장

권일 집사(임마누엘교회, 필라한인회 전회장), 오성환 집사(체리힐링전교회, qp.pro사장).

국가공인 법인체로서 교계와 동포들의 성원과 협조를 받아 운영되고 있는 필라기독교방송국은 자원봉사자를 수시로 모집하고 있다.

▲문의: (215)924-0191, 924-0691.



뉴저지교협 제3차 임원/분과 월례회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뉴저지교협 제3차 임원/분과 월례회

분과별 행사보고... 목회자신분증 발급, 주소록 배부 등

2013년 새해를 맞아 제 3차 뉴저지교협 임원 및 분과위원 월례회가 지난 9일 오전 10시 소망교회(담임 박상선 목사)에서 열렸다.

한편 뉴저지교협은 27일(주) 오후 5시 필그림교회(담임 양준길 목사)에서 신년하례식을 갖는다. 이날 목회자 신분증 신청(수수료 50달러, 갱신료는 20달러)을 시작하고 주소록(추진위원장 김명진 목사)도 배부한다.

박상선 목사 인도로 진행된 월례회는 서기 조재원 목사(에셀교회)의 지도에 이어 총무 박근재 목사(시나브로교회)의 활동보고와 회계 변영순 장로(소망교회)의 재정보고, 그리고 각분과별 보고가 있었다. 분과별 보고는 다음과 같다.

▲호산나전도대회 개최동시 개회 ▲선교분과(박인갑 목사): 3월 18일(월)-20(수) 선교교노라마컨퍼런스,

(정리: 유원정 기자)

AYC, 롱아일랜드지역 청소년연합부흥회 성료

뉴욕교협 청소년 센터(AYC, 대표 최예식 목사, 사무총장 김현돈 목사)가 주최한 롱아일랜드지역 청소년 연합부흥회가 지난 11일부터 이틀간 뉴욕반석교회(담임 김대희 목사)에서 열렸다. 15개 교회에서 청소년들이 참가했으며, 강사는 패트릭남 전도사(뉴저지 필그림교회 중등부 디렉터)가 맡았다.

사무총장 김현돈 박사는 “사역 상황이 열악한 롱아일랜드 지역에서 집회를 가진 이유는 다음 스텝인 학원사역을 목표로 한다”며 “롱



아일랜드 지역 6개 학교에 사역자 한 명을 파송했다”고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대학진학 후 93%의 한인학생들이 교회를 떠나는 현실은 미국 평균보다 높다”며, 시너지 효과를 얻는 연합 청소년사역을 위한 지원과 기도를 부탁했다.

(정리: 유원정 기자)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학생모집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소속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학장 장영준 목사)가 2013년도 봄학기 주야간 신입생을 모집한다. △대학부: 신학과, 선교학과 △대학원: 목회학, 기독교교육, 선교학 △여교역학과가 있으며 서류는 입학원서, 당회장/목사 추천서, 최종학교 졸업 및 성적 증명서, 신앙고백서, 명함판 사진, 입학전형료 20달러 등이 필요하다. 원서접수마감은 1월 15일(금) 오후 6시, 입학시험은 26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영성훈련은 28일(월)-30일(수) 저녁 8시에 있다.

▲문의: (718)463-7163, (646)717-2733

뉴욕리폼드신학교 봄학기 학생모집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신)측 교단 소속 뉴욕리폼드신학교(학장 유상열 목사)가 2013년도 봄학기 학생을 모집한다. 모집학과는 학부와 대학원 모두 신학, 교육, 상담, 음악, 선교 학과가 있다. 또 찬양사역자 양성을 위한 실용음악과도 개설돼 있다. 원서마감은 2월 15일(금)이며 개강예배는 17일(주) 오후 6시 30분 동교(37-57, 104 St, Flushing)에서 드린다. www.rbsny.org 참조.

▲문의: (718)961-2171, (917)862-0523

담임목사 청빙

뉴욕장로교회가 담임목사를 청빙한다. 보수개혁주의 신앙이 확고하며 이민 1세와 2세를 위한 신앙교육과 열방을 향한 전도와 선교에 비전을 가진 목사로 지원 자격은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교단에 가입했거나 가입에 결격사유가 없으며 총회인정 신학대학원 졸업하고 목회경력 5년 이상, 이종언어 설교 가능자. 제출서류는 한영이력서(사진포함), 신앙고백서와 목회계획서, 학위증명서와 안수증명서, 최근 설교2편(동영상), 최종사역교회 주보 1개월분과 교회홈페이지 주소, 추천서 2인(사인, 밀봉). 마감은 1월 31일.

▲문의: cbnyoc2012@yahoo.com

“아빠의 선물” 출판 기념회

패밀리리치 정정숙 원장의 “아빠의 선물” 출판기념회가 뉴욕과 뉴저지에서 각각 열린다. 뉴욕에서는 지난 24일 플러싱 금강산 식당에서, 뉴저지에서는 2월 3일(주) 오후 5시 소망교회 교육관에서 열린다. 참가비는 없으며 식사는 제공된다. 단 참석자는 예약이 필요하다.

▲문의: (201)242-4422, 647-1446

미드웨스트대학교 학생 모집

글로벌 인재발굴과 양성을 실현하는 미드웨스트대학교(총장 제임스송 박사)가 2013년 신입생들에게 특별 장학금 혜택을 준다. 학위과정은 ESL, 학사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으로 온 캠퍼스(I-20발행), 온라인 모두 가능하며 수시입학이 가능하다. 인터넷 환경이 어려운 지역은 별도 교육방법을 하게 된다. 본교 졸업 후 IEA 절차에 따라 목사안수를 받고 목회자 추천 혹은 선교사 파송이 가능하다. 웹사이트 www.midwest.edu

▲문의: (636)327-4645

반주자 청빙

뉴욕평화교회(담임 임병남 목사)에서 반주자가 일시적 한국방문으로 예배반주자를 청빙한다. 기간은 1월 27일(주)부터 3월 31일(주)까지 주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성가대 연습, 예배, 점심, 성가대 연습). 월 400달러 지급. 꼭 전공자가 아니어도 상관 없다.

▲문의: (718)962-5131 peacechurch@hotmail.com

반주자 청빙

새가나안교회(담임 이병욱 목사)에서 반주자를 청빙한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세례 받은 피아노 전공자로 찬양대 반주 경력이 있어야 한다.

▲문의: (917)224-2000, johnbhllee@hotmail.com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 NJ) 교회안내

Table with 4 columns and 6 rows listing various churches and their contact information. Includes: 뉴욕셋새미대교회, 뉴욕목양장로교회, 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뉴욕새사람교회, 뉴욕순복음안디옥교회, 뉴욕중부교회, 뉴욕초대교회, 뉴욕효신장로교회, 뉴저지성도교회, 리빙스톤교회, 롱아일랜드성결교회, 베다니교회, 어린양교회, 유니온연합감리교회, 주미전교회, 중부뉴저지장로교회, 퀸즈플로교회, 퀸즈연합교회, 한미침례교회,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브라질 서교교회, 브라질 한인교회, 브라질 새사망교회, 아르헨티나 제일교회, 칠레 한인연합교회, 파라과이선교본부교회.

영혼사랑 뜨거운 선교열정 안고 하나님 품으로 멕시코 단기사역 중 김옥란 선교사, 이정숙 권사 소천

미주한인예수교장로교회 세계 선교회 파송 김옥란 선교사(고 김종일 목사 사모)와 뉴라이프선교회 이정숙 권사가 바하칼리포르니아 멕시코 라파스 단기사역 중 교통사고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고 김 선교사의 장례는 남가주 든든한교회 교회장으로 22일 오후 7시 임관예배, 23일 오전 10시 발인예배를 드린 후 로스앤젤러스로 옮겨 4년 전 소천한 고 김종일 목사 곁에 안장됐다.

4년 전 고 김종일 목사(남가주 든든한교회 설립자)가 소천한 후 교단 세계선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 받은 김옥란 선교사는 남편을 잃은 슬픔을 딛고 선교사로 우

뚝 섰다.

슬하에 4남매를 두고 있는 어머니로서 가정을 떠날 수 없음을 안타까워하며 기회가 닿는 대로 단기사역에 참석해오던 중 지난 14일 고 김옥란 선교사는 예전과 같이 “치과사역을 도와줄 좋은 도우미를 만나게 해달라”는 기도부탁을 남기고 멕시코로 출발했다.

이번 사역지는 바하칼리포르니아 맨 끝 지역인 Los Cabos 지역까지 다녀오도록 예정되어 있었고 사고가 난 지역은 로스카보스에서 두 시간 정도 거리인 라파스였으며 선교팀은 두 대의 차량으로 나뉘



김옥란 선교사



이정숙 권사

이동하던 중 김 선교사와 이정숙 권사가 승차한 두 번째 차량이 변을 당했다.

고 김 선교사가 이번 단기사역을 떠나기 앞서 지인들과의 만남을 통해 선교의 어려움이 없느냐고 묻자 “선교는 목숨 걸고 하는 것이지요”라는 답을 남겨 남은 이들의 마음을 더욱 안타깝게 했다.

유족으로는 장녀 엘리자베스, 차녀 사라, 장남 아론, 차남 마르틴이 있다.

17일 새벽 소식을 접한 남가주 든든한교회(담임 김현인 목사)는 김현인 목사 부부와 고 김 선교사의 장남, 장녀가 멕시코 사고현장으로 달려가 사건 정황과 장례절차를 밟았다.

한편 남가주든든한교회 당회원들은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고 김 선교사의 장례를 교회장으로 치르기로 결정하고 고인과 유족들을 위해 온 정성을 담아 교회와 성도들이 장례일정을 준비했다.

한편 고 이정숙 권사(뉴라이프교회)의 장례일정은 22일 오후 6시30분 뉴라이프교회(담임 박영배 목사)에서 천국송예배를 드린 후 시신을 화장해 캄보디아로 옮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성자 기자)

‘커피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사랑’ 드림교회, 커피전문 선교사 초청 세미나 성황

드림교회(담임 이성현 목사)는 ‘커피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주제로 커피와 선교 세미나를 20일 오후 1시 본 교회 카페에서 성황리에 열었다. 이날 동아시아지역에 선교사역을 하고 있는 커피전문가인 노 스테반 선교사가 강사로 나서 커피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커피를 통한 선교이야기를 나누었다.

이날 노 스테반 선교사는 “커피의 역사는 1000년 정도 된다. 커피의 종류로는 고급커피로 아메리카지역에서 나는 아라비카와 동남아시아에서 있는 질은 조금 떨어지지만 동결시켜서 나오는 로브스타, 그리고 아이티에서 나오는 리베리카와 자메이카에서 나오는 블루마운틴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노 선교사는 “커피와 선교와는 많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것은 커피의 종류가 이슬람이기 때문이다. 미국인들과 한국인 그리고 중국인 등이 커피를 선호한다. 특히 북을 전할 때 그냥 하는 것과 커피한잔을 하면서 하는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커피한잔이 상대방의 마음을 열 수 있는 매개체가 되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될 정도로 커피에는 만남의 축복이 담겨있다”고 말했다.

그는 “커피는 다양한 종류가 있다. 특히 불에 볶는 정도에 따라 신맛과 쓴맛을 내게 된다”고 밝히며 “커피는 한 종류보다 두 종류 이상 섞어서 만들면 맛은 더 좋아진다. 브라질 커피는 다른 지역 커피에 비해 향이 없는 편이다. 그러나 다른 커피에 브라질 커피를 섞어서 만들면 그 맛이 극대화 된다”고 말했다.

그는 “커피전문점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좋다. 선교지중에는 선교



커피전문가 노스테반 선교사가 강사로 나선 가운데 열린 커피와 선교세미나가 드림교회에서 열렸다(사진은 세미나 포스터)

사가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이 많이 있다. 그러나 커피점은 허가가 잘나온다. 따라서 선교사들이 커피전문가인 바리스타교육을 받으면 선교지에서 커피전문점 비즈니스맨 자격으로 활동하면서 선교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주일에는 커피전문점 영업을 하는 대신 교회로 사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커피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전하는 가장 좋은 틀이다. 커피한잔으로 친구가 될 수 있고 선교지에서는 교회역할을 감당하는 좋은 도구이다. 많은 분들이 비자문제로 고생하고 있다. 그러나 커피점 하나당 6가점 비자를 받을 수 있다. 커피전문점 비즈니스를 통해 선교지에서 전도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 좋은 점을 잘 살려 선교가 활발히 이루어졌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는 강의 후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으며 노 선교사의 사역과 커피전문점 선교사역을 위해 합심기도를 하는 시간도 가졌다.

(박준호 기자)



LA사랑의교회에서 열린 말씀사경회에서 김기섭 담임목사와 성도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LA사랑의교회 담임목사 강사로 말씀사경회

LA사랑의교회(담임 김기섭 목사)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마11:2)라는 주제로 말씀사경회를 13일부터 18일까지 매일 저녁 7시에 열었다.

특히 마지막 날 행사는 2013년을 시작하면서 열린 제7차 신년특별사경회(특새)와 말씀사경회를 마치면서 열린 축제의 시간으로 진행됐다.

사경회 기간 동안 말씀을 전한 김기섭 목사는 마지막 날 “내일이 온 재할까 과연 나에게 내일이 올수 있을까 가장 어렵고 깊은 절망의 터널 가운데 찬양 부르고 힘을 얻게 하

셨다. 인생의 기도제목 좋은 주님의 능하신 손에 올려드린다. 하나님은 우리 피난처이며 환란중의 큰 도우심이 되신다. 우리 주의 백성들은 어떠한 요동함속에서도 두려워함 없게 해주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믿을 알지언다 라는 고백으로 힘 있게 전진하는 믿음을 가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행사는 특새 개근상 시상시간을 가졌으며 특새를 통해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박준호 기자)

비전케어에 모금액 3천불 전달 사랑의빛 나눔 음악회 성료

화랑라이온스 클럽(회장 사라박)과 화랑레오클럽(회장 에드워드김)이 공동주관하고 화랑청소년재단(회장 마로조)과 남가주음악협회(회장 강영욱)가 공동주최한 ‘사랑의 빛 나눔 음악회’가 20일 오후 6시 월서연합감리교회(담임 정영희 목사)에서 열렸다.

이날 화랑청소년재단 학생들이 모금운동을 해 정성껏 모은 3천 달러를 비전케어서비스 미주서부(지부장 서영석)에 전달하는 시간을 가

졌다.

음악회는 와이즈싱어즈(지휘 김재숙), 랜디킴 밴드, LA남성선교회 합창단, 그라지오스 트리오, 이화코랄 등과 소프라노 장혜지, 테너 이규영, 피아니스트 임태연, 트롬본연주자 권오태 등이 나서 수준 높은 곡을 선보여 음악회를 빛냈다.

이날 음악회는 이화코랄과 LA남성선교회합창단의 연합합창과 싱어롱 시간을 가진 후 마쳤다.

(박준호 기자)

서부교계 게시판

OC기독교전도회 연합회 회장 및 이사장 이취임식
오렌지카운티 기독교전도회연합회(회장 박우진 집사) 제 33대 회장 및 제 31대 이사장 이취임식이 26일(토) 오후 5시 남가주사람의교회(담임 노창수 목사) 사랑제플에서 열린다.
▲문의: (714)824-1210 정희수 총무

플러신학대학원 한인총동문회 2013년 신년모임
플러신학대학원 한인총동문회(회장 박진구 목사)에서 주최하고 플러한인 M.Div.동문회에서 주관하는 플러(Fuller) 한인총동문회 2013년 신년모임이 27일(주) 오후 6시 포감사선교회(담임 최경욱 목사 1440 N. Spring St. Los Angeles)에서 개최된다. 회비는 20달러(부부동반 30달러, 2012년 졸업자 및 2013년 졸업예정자는 무료)이며 베이비시터가 준비돼 있다. dan9park@hotmail.com(박진구 회장).
▲문의: (909)238-2211 고승희부회장

남가주연합기도회
남가주연합기도회가 26일(토) 오후 4시부터 10시까지 LA사랑의교회(담임 김기섭 목사)에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는 주제로 열린다. 이번 기도회는 남가주의 사역자들이 함께 모여 기도의 필요성을 깨달고 이 땅의 젊은이들과 현재대의 크리스천들이 함께 모여 찬양하며 기도함으로 교회와 교회의 벽을 허물고 뜨겁게 기도함으로써 가정과 개인 그리고 교회의 회복은 물론, 나라와 민족 그리고 세계를 위한 기도를 통해 주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취지로 열리게 된다.
▲문의: (714)323-1194

창조과학세미나
주님의영광교회(담임 신승훈 목사)가 27일(주) 오후 1시 창조과학세미나를 비전센터 105호에서 갖는다. 이번 세미나의 강사는 이재만 선교사, 최우성 박사.
▲문의: (213)749-4500

미주성결교 남서부지방회
제34회 미주성결교 남서부 지방회가 2월 3일(주) 오후 5시 30분에 샌디에고 로고스교회(담임 김건오 목사)에서 열린다.
▲문의: (858)356-7177

아이엠처치 예배장소 이전
아이엠처치(담임 정종원 목사)는 지난해 12월 30일 송년예배부터 새 예배처소로 장소를 옮겨 예배를 드리고 있다. 새 주소는 1000 Venice Blvd. Los Angeles, CA 90015이다.
▲문의: (323)733-9101

얼바인침례교회 김동길 박사 강연
얼바인침례교회(담임 한중수 목사)는 김동길 박사 강연을 27일(주) 오후 7시에 갖는다.
▲문의: (949)857-9425



사랑의빛 나눔음악회에서 와이즈싱어즈가 찬양하고 있다

SAM CARE 샘 복지재단

“강을 건너 세기 세기로”

대표 박세록 선교사

이메일 samcareusa@gmail.com

Tel. (714)870-1101

1309 W. Valencia Dr. #A Fullerton CA 92833

www.theonehall.com

The One Banquet Hall

one love...one life...

1%의 차이가 명품 웨딩을 만듭니다

The(원) 결혼식, 돌잔치, 세미나, 각종행사

아로마센타5층

213-387-7575

3680 Wilshire Blvd, 5Fl, L.A., CA 90010

www.laguesthouse.com

LA GUEST HOUSE

LA 호텔식 하숙

965 Fedora St, Los Angeles, CA 90006 (올림픽 김스 전기앞)

Tel. 213.487.5446 Cell. 213.663.9181 Email, laguesthouse@live.com

기독교 결혼 정보회사

HANA NOBLESSE

초혼, 재혼

YOUNG KIM

213.514.2004

youngkim720@hanmail.net

사랑과 행복을 드리는

‘한나 꽃집’

Hanna Flower Shop

각종 선물포장
꽃/과일바구니

결혼 꽃 / 파티 꽃
축하 꽃다발 / 장례 꽃
한국 꽃배달 / 타운내 무료배달

주소: 4034 W. Olympic Blvd, LA, CA 90019
전화: (323)936-1077 / (213)254-7003

설교/비디오 복사

SONY PHILIPS LG

BLANK CD
BLANK DVD
SALES

공 디스크 저가판매!

DiscMaster
자동형 복사 & 프린터

초간편 복사기

전도용 멀티슈
판매

TOLL FREE: 1-866-817-4094 (ext.101 or 102)

www.produplicator.com

4010 Valley Blvd., #105, Walnut, CA 91789

생명의말씀사

Word of Life Books

미주 최고의 ONE STOP 기독교 백화점

2707 W. Olympic Blvd., #100 Los Angeles CA 90006
TEL. 213.382.4538 Fax:(213)382-1154

www.lifebook.co.kr

Email: wordoflifela@hanmail.net

로스앤젤레스 지사 워싱턴DC 지사

TEL. 800.347.7057 TEL. 800.228.2928

AUTHORIZED adidas DISTRIBUTOR

태권도 검도 무술장비 전문업체

DYNAMICS 다이내믹스

www.dynamicsworld.com

교회 로고프린트 티셔츠50벌 이상 \$5
교회 로고 프린트 자수타월
광고배너 / 교회배너 제작

T. 516.354.8484 F.516.354.8383
245-14 JERICHO TPKE, FLORAL PARK, NY 11001

해외선교사 53%, 169개국 중 10곳에 몰려

KWMA '2012 한국 선교사 파송 현황' 발표

한국 선교사의 절반 정도가 특정 나라들에 몰려 있는 등 선교사 풀림 현상이 여전히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국내 기독교 교단과 선교단체 연합기관인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가 최근 발표한 '2012년 한국 선교사 파송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169개국에서 사역하는 한국 선교사 2만5665명(이 중 소속 포함) 가운데 중국, 미국, 필리핀, 인도, 태국 등 10개국에 파송된 선교사가 전체 선교사의 52.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선교사 파송 1위국인 중국에만 전체의 15.7%인 4039명이 나가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파송 선교사 수는 2011년에 비해 1411명 늘어났으나 나라별 편중 실태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것이다.

또 복음화 비율이 낮은 것으로 분류된 88개국에 파견된 한국 선교사는 지난해 1만4995명이었으나 이

들 가운데서도 59.6%인 8940명이 중국, 일본, 태국 등 7개국에 집중됐다. 나머지 81개국에는 6055명이 파송됐다. 이들 7개국에는 나라당 평균 1277명의 한국 선교사가 있는 반면 82개국에는 나라당 75명에 불과했다.

국내에 파송된 선교사 수도 1690명으로 비교적 많았다. 이는 선교본부 행정 및 동원, 순회 선교사뿐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와 유학생, 북한 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선교하는 사역자들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선교사들이 일부 나라에 몰리는 것은 선교사 박해 여부와 비자 문제, 자녀교육 여건, 선교전략 부재 등에 따른 것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지 교회와의 전략적 교류 등 선교사 재배치를 위한 실효 있는 마스터플랜이 필수적이라 지적이다.

한정국 KWMA 사무총장은 "선교

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종교 탄압이 가혹하거나 자녀교육 여건이 열악한 지역은 선호하지 않을 수 있다"며 "미전도 종족과 지역으로 가는 '전방개척 선교'를 더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KWMA는 2030년까지 전 세계 미개척지역에 한국 선교사 10만명을 파송하는 '타깃2030'을 지난해에 이어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사무총장은 "한국 선교사들이 선교지에서 엄청난 중북부자



다락방 류광수 목사, 이단 활동 여전

예수의 인성 부정, 배타적 교회관 그대로 묻어나

한국기독교총연합회(총회총회 대표회장)가 최근 다락방 류광수 목사를 이단 해제했지만, 류광수 목사(임마누엘서울교회)는 여전히 예수의 인성을 부정하고 천사동원권을 가르치는 등 이단적인 내용을 설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락방 류광수 목사는 지난해 12월 28일 한기총이 주관해 열린 신학사상 검증회에서 "사과드린다. 진심으로 한국교회와 같이 가고 심부름하겠습니다"고 말한 바 있다. 다락방 전도운동에 대한 사실상의 사과였다. 하지만 류목사는 여전히 이단성 있는 내용들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락방 계열의 서울 예원교회 홈페이지를 보면 류광수 목사가 작성한 전도 교재가 올려져 있었다. 자료에는 복음편지와 현장복음 등의 이름으로 류광수 목사의 설교 내용이 함께 실려 있었다. 교재 곳곳을 살펴보면 다락방이 참소망이고, 하나님의 구원역사가 이루어지는 센터라고 주장이 담겨 있었다.

"소망의 모든 결론은 하늘나라이다. 참소망을 주는 곳이 다락방이다. 기독교 신자가 '어쩔 수 있느냐? 죽으면 하늘나라 가자...' 이런 식으로 깨달은 사람이 있다. 그러나 그렇게 깨달으면 잘못 깨달은 것이다. 여러분에게 제일 좋은 곳이 하늘나라이다. 이 소망을 주는 곳이 다락방이다."(류광수 목사의 복음편지 중 일부)

한국교회가 문제삼고 있는 배타적 교회관이 그대로 묻어 있는 것이다. 즉, 마지막 때에 다락방만이 유일하게 남을 것이라는 이른바 '랩넛트' 사상 때문에 이단으로 규정됐었는데, 달라진 것이 없었다.

박형택 목사(한국장로교총연합회 이단상담소장)는 "자기들 교회만이 이 시대에 남아있는 참된 교회라고

주장하는 랩넛트 사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기성교회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고 말했다.

다락방 교재에서는 또, 9개 주요 교단들이 이단으로 규정된 근거가 됐던 예수의 인성을 부정하는 내용들이 그대로 남아있었다.

류광수 목사 복음편지 중에는 예수그리스도를 완전한 신성, 완전한 인성을 지닌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육신에 하나님의 영만 임한 것이라며 예수의 인성을 부인하는 표현들이 여전히 많았다.

"영은 하나님이시고 몸만 사람의 몸을 입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이름이 예수님이시다"(류광수 목사 복음편지 중 일부)

이단 전문가 이인규 권사(세계한인기독교이단대책연합 사무국장)는 "예수님의 영에 하나님이 들어온 것과 성도들에게 성령이 들어온 것을 똑같이 보는 것이다."며, "예수님을 GOD MAN의 첫 샘플로 보고, 우리 성도들도 결국 예수님과 똑같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신화사상을 말한다"고 주장했다.

자료에서는 또, 이단시 되는 가계의 저주론을 그대로 믿고 있고 베로아 귀신론과 유사한 내용들을 담고 있었다.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는 것이 복음전파이다... 죄로 인한 병은 세 가지인데 조상의 죄-우상숭배는 삼, 사대까지 이르는 병이다. 이들도 밝혀지지 않으며 의술로는 불치병으로 드러나게 된다."(류광수 목사 복음편지, 현장복음 중에서) 이처럼 류광수 목사는 한국교회와 함께 가고 싶었던 사과와는 달리 다락방 전도 방식을 수정하지 않고, 다락방교회도 해제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WCC 부산총회 관련 4개 단체 공동선언문

'개종 전도 금지 반대' 등 에큐메니컬 진영 혼란

세계교회협의회(WCC) 제10차 부산총회와 관련, 지난 13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등 4개 단체 대표가 서명 발표한 공동선언문에 대해 에큐메니컬 진영이 혼란을 빚었다.

17일 오후 서울 연지동 한국기독교교회관에서 개최된 NCCK 1차 실행위원회에서 김영주 총무가 공동선

언문에 서명한 사안과 관련해 2시간 30분간 열린 논쟁이 벌어졌다. 실행위원들은 "김 총무가 총회철 한기총 대표회장 등과 공동 작성한 합의문에서 개종 전도 금지 반대와 종교개종 등 에큐메니컬 진영의 이해와 다르고 보수 근본주의 신앙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에큐메

니컬 원칙과 다르기에 조사와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총무는 사과를 했으며, 실행위원들은 김근상 NCCK 회장(대한성공회 의주교구)에게 사대 수습의 전권을 위임기로 했다. 김 회장은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여러분들이 납득할 만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실행위

원들은 선언문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의견을 제기했지만 정식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은 관계로 NCCK나 실행위의 공식 입장은 표명되지 않았다.

앞서 총회철 한기총 대표회장, 김영주 NCCK 총무, 김삼환 WCC총회 한국준비위원회 상임위원장, 길자연 세계복음주의연맹 총회준비위원장 등은 지난 13일 2013년 WCC 부산총회 개최에 대한 보수 교단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4개회의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비대위 2월 19일 비상총회 결정

예장합동 어디로 가나...교단 안팎 관심 집중

예장 합동 '총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서장수 목사)가 다음 달 비상총회를 열기로 결정함에 따라 교단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비대위는 15일 대전 중앙교회에서 노회장 모임을 갖고 찬성 67표, 반대 16표로 다음달 19일 비상총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전체 노회수가 140개인 것을 감안하면 절반 가까운 노회가 비상총회 개최라는 강경한 방안을 선택한 셈이다. 총회는 16일 임원회를 개최했으나 이 문제에 대해 별다른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실행위원회에 맡겨 처리하기로 했다.

현재 교단 내에는 노래주절침입 의혹, 총회 운영-가스총 동원, 급작스런 총회 파회, 총회본부의 표류 등으로 어느 때보다 교단개혁 의식이 높은 상태다. 비대위 임원들

은 그러나 '법적 책임'과 '교단분열'의 부담감 때문에 극단적인 행동은 피해왔다. 지난해 11월 대규모 기도회를 개최하고도 비상총회를 강행하지 않은 것이나, 지난 3일 모임에서 임원회 일괄 사퇴의사를 밝힌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다. 이번에 결의한 비상총회도 심리적 압박을 이삼은 되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비상총회의 법적 효력이 의문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준모 총회장과 황규철 총무가 이끄는 97회 총회가 정상화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정 총회장은 4개월간 임원회조차 개최하지 못할 정도로 리더십에 큰 타격을 입었다. 총회 행정과 상비부는 나름대로 운영되지만 그 밖에 특별위원회와 연합사업 등에서 뼈격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한기총의 옛 다락방전도협회 가입 허용과 세계교회협의

회(WCC) 총회 협력선언에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한 것도 이처럼 복잡한 내부사정 때문이다. 이대로 가면 '목사장로기도회'와 '기도한국' 등 대규모 교단행사도 차질이 불가피해진다. 지도부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되면서 일부 노회와 교회가 총회에 등을 돌리고 있기 때문이다.

비대위 입장에서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는 오는 3-4월 봄 노회에

서 총회개혁 현의안을 채택하고 9월 총회를 구태인사 청산과 개혁정책 수립의 '개혁총회'로 만드는 것이다.

개혁성향의 한 목회자는 "국내 최대의 예장 합동 교단이 개혁될 때 한국교회가 개혁된다"면서 "비상총회와 봄노회, 제98회 총회가 교단개혁의 절호의 기회가 되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다락방 류광수는 이단' 입장 재확인

예장합동, 고신 총회 잇따라 기존입장 밝혀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지난 14일 다락방 전도운동 류광수 목사를 이단에서 해제한 것에 대해 각 교단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총회장 정준모 목사)는 지난 16일 열린 임원회에서 "한기총의 이단 해제 결정과 상관없이 예장합동총회는 이단으로 규정된 기존의 입장을 고수한다"고 밝혔다.

예장합동총회는 지난 1996년 제 81 총회에서 천사동원권, 사탄 배상설, 김기동 귀신론 유사 등을 이유로 류광수 목사를 이단으로 규정된 바 있다.

또,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총회장 박정원 목사)는 '총회 유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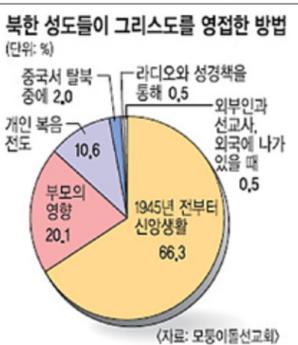
기독교연구위원회' 이름으로 입장을 발표하고, "류광수의 사상이 이단성 있는 불건전한 운동"으로 채택된 지난 1998년 연구보고서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이번 한기총의 이단 해제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고신총회는 또, 총회 산하의 교단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류광수 씨의 사상을 이단성 있는 불건전한 운동을 규정한 총회의 기존 입장을 따라 줄 것을 권했다.

예장합동총회와 예장고신총회가 류광수 목사의 이단성을 재확인함에 따라 한기총의 이단해제에 대한 각 교단들의 반발이 뒤따를 전망이다.

북한서 순교한 성도 1만6984명

체포된 원인	1945~2006년
술에 취해 운전하다	7,419
공개적으로 신앙고백 하다	5,637
비밀리에 복음을 나누다	159
전쟁기간 성도임이 발각돼	673
3-1절 기념예배 등으로	141
교회 건물을 지키다가	32
중국에서 북한으로 강제 복송	111
성경을 소유하고 있던 중	21
북한 주민 지원하다가	2
알 수 없음	2,789
총 계	16,984



카리스 종합주석

NEW /원어 /배경 /주석 /강해 /One Stop Reading

카리스종합주석은 성경에 관한 모든 종류의 질문과 상호 긴밀한 연관하여 새롭게 정리되어 있는 세계 최초의 저작입니다.

날권 \$30
전권 구입시 \$25 each

2013년 달력

www.buycalendar.com 에서 더 많은 달력과 디자인을 확인하세요

미주판 국경일도 준비됨
교회들을 등 단체 이름 새겨드립니다

일반달력/기독교달력

공장도 가격세일

- 달력/수첩 주문제작 가능
- 교회 로고와 이름 인쇄 가능

기독교인을 위한 최고의 선물

○타니엘 전자성경
○만나 전자성경

HIS media 히스미디어에서 하는 일

교회를 건축하시거나 증축하실 때 미리 연락주시면 경비를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최저의 가격으로 최대의 효과

멀티프로젝터 3000 ANSI LUMENS

2300 Ansi Lumens \$699
2600 Ansi Lumens \$799
3000 Ansi Lumens \$899

그 외 다수의 밝기 모델 취급함

E7 미가엘 반주기

뛰어난 휴대성, 활 빠르고 편리한 기능!

- 선명하고 넓은 LCD화면
- 원음에 가까운 연주
- 본체 고음질 스피커
- USB 호스트 기능
- SD카드 사용
- 터치스크린 방식
- 장시간 연속재생

HIT상품 미주총판

찬양연주기, 성경 DMB, 네비게이션 영화, 음악 FM라디오, 음성녹음 가능

미중동부 지사 획득! 특별세일!

헬라성구사
에하드수정장대상
EHAD CRYSTAL PULPIT
LED LAMP를 설치한 연나는 강대상 헬라문의 독특한 디자인

최저가격 보장
성구회 최초 GD마크 획득!
한국디자인 인증으로 부터 Good Design 마크를 획득하였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지정납품업체 선정
이름이 자유로운 바퀴(360도회전) 손잡이(17磅당 1돈) 신년맞이 유망채널 - 성교자 시력보호

이외에도 다양한 목재성구와 크리스탈 성구가 있습니다.

주문처

성경, 찬송가 등 기독교의 모든 것

할렐루야백화점

HALLELUJAH BOOKS, Inc.

인터넷 샵몰
www.gospelmall.com

NY 40-21 159th Suite 1B Flushing NY 11358
Tel. (718) 762-0011/Fax. (718) 762-8402
1-800-404-1171

NJ 205 Bergen Turnpike Little Ferry, NJ 07643
201-373-0030

LA 621 S. Virgil Ave. Suite 200 L.A., CA. 90005
213-925-5434

성경, 찬송가 기독교서적 일반서적 영문기독교서적 강대상, 까운, 달력, 다이어리

특고.선교

내가 본 고 김옥란 선교사님

-선교현장에 함께 있었던 멕시코 이중식 선교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하는 고 김옥란 선교사님을 영원한 하나님의 품으로 불러가셨습니다. 이 땅에 육신으로 사는 우리의 마음으로 표현 할 수 없이 슬프고 애痛합니다. 그러나 김 선교사님의 영혼은 주님 품에서 감격과 기쁨의 찬송을 부르고 계시길 믿습니다. 저는 2012년 여름 단기선교팀으로 오신 김 선교사님을 뵈었습니다. 희어진 머리에 웃음을 머금고 농장에서 일하는 인디오 형제들의 치아를 실 새 없이 진료하며 치료하셨습니다. 그러나 김 선교사님은 육신 뿐만 아니라 마음을, 영혼을 치료하는 선교사였습니다.



단기선교를 다니며 헌신하는 고 김옥란선교사님

선교사를 꿈꾸며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해 틈틈이 강의 통역과 상담도 맡아주셨습니다. 진료하는 시간에는 늘 찬양을 들으며 기쁨으로 의료사역을 하신 아름다운 신앙의 분이 되는 겸손한분이었습니다. 김 선교사님은 의료선교를 온전히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며 사셨습니다. 한번은 식사를 마치고 내려오는 중에 2학년 학생 하스민의 집을 방문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넓은 들만에 처진 낡고 작은 트레일러 안에서 추위에 5식구가 사는 것을 보시고 올라가셨는데 이번 사역에 오실 때 전막 3개를 사오셨습니다. 그리고는 하스민집이 추위 보이기 지붕과 벽을 쳐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렇듯 김 선교사님은 육신의 치료만이 아니라 온 영혼을 사랑하신 분이셨고 학교 기숙사에 있는 옷걸이와 휴지통에 이르기까지 김 선교사님의 사랑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장거리 선교에도 아무 말도 없이 "주님의 일인데 모두가 헌신 해야지요"라며 동행 하셨습니다. 지난 16일-17일 이스카야노 피로데사역때

에 태풍으로 먼지와 바람이 너무 심해 사역이 지연되자 하루를 머물며 사역을 하지고 하셔서 잇몸치료환자 45명을 다 치료하시고는 통통 부은 발과 허리가 아프다고 하시며 침을 맞고 또 환자를 치료를 하셨습니다. "선교사님 저는 이를 빼지 않을래요. 평생회 회 텐데 치료해서 살려야지"라며 꼼꼼히 치료하시는 선교사님을 향해 "선교사님 사람들이 많이 밀렸어요!"하고 재촉을 하면 그저 웃음만 지으며 "기다리세요"라고 하시며 최선을 다해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한 선교사님이었습니다.

죽임의 부르심을 받던 마지막 사역 날, 그날도 하루 종일 점심도 거르고 치료사역을 하신 후 늦게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날의 사역을 마치고 우리 선교단 일행이 라파스로 향할 때는 이미 거리엔 어둠에 내려앉았습니다. 깜깜한 산기슭 사이에 자동차의 헤드라이트 빛만이 산자락 오르막길을 환히 비추는 광경을 보시고는 "천국 가는 길처럼 참 아름답습니다"라고 하시며 "하늘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일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영광 밝음이 어둔 그늘 비추니 예수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를 부르셨습니다. 그 찬양을 마친 후 잠이 드셨고 하나님 품에 고요히 안기셨습니다.

지금 아름다운 천국에서 당신의 선교의 발자국을 내려다보며 미소 짓고 계시는 선교사님의 모습을 그립니다. 우리 모두에게 신실한 사랑의 모델이 되어주신 선교사님! 선교사님을 기억하는 이틀마다 선교사님의 뜨거운 선교열정을 이어 가게 될 것을 확신하며 믿습니다. 선교사님 저 천국에서 만납니다!

선교지에서 온 시

백두산 들꽃

이 윤 식(연변희망복지촌)

해발 2744미터
북풍한설 모진 추위
그 동토 속에서도

생명은 살아
짧디나 짧은 이 날에
가장 아름답고 향기롭게 피었습니다

오랜 세월 뿌리를 내리고
서로가 헤어지면 죽을 새라
얼기설기 부동켜안고 살아온 생명들

오늘은 장하게도
그 아름다운 자태와 넋을 온 세상에 뽐내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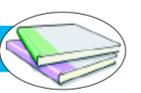
요 몇 년 사이 수많은 손님들이 찾아와
우리들 모습은 더욱 기(氣)를 올렸습니다

이어서 찾아온 손님- 환경오염
우리들 모습에 돌연변이가 일어나
억겁을 살아온 생명들이 하나둘씩
보이지 않습니다.

슬픈 사연입니다.
외롭지만 순수했던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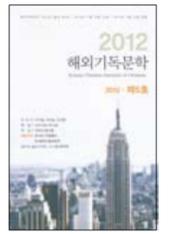


책 소개



"2012 해외기독문학" 제 5호

초대작가와 회원작품의
모든 장르작품 수록



미주기독문학동우회(회장 이철수 목사)의 5번째 문집 "2012 해외기독문학" 제 5호가 지난해 말 출간됐다.

초대작가로 광삼희, 김명옥, 이가림, 추영희, 허금행의 시와 국인남, 오인동의 수필을 게재했다. 회원탐방기사로 문성록 목사를 강남미 전도사가, 장산 이상철을 이계선 목사가 만났으며, "내가 만난 하나님" 주제로 2명, "은퇴의 즐거움" 주제로 김영백 외 4명, 편집실에서 회고하는 "남기고 싶은 이야기-그 시절 동우회"를 실었다.

그리고 시, 수필, 대경간증수필, 소설 등 모든 장르의 회원작품들을 실었다. 시는 24명, 수필 13명, 간증수필 4명, 소설 3명의 회원이 참여했다.

마지막에는 특별부록으로 "벤자민 플랭클린의 생애와 사상"(장석렬), "민족문학으로서의 통일문학의 과제"(김경락)를 게재했다. 이외에 편집후기와 미주기독문학동우회 회원명단을 삽입했다.

동우회는 1995년 뉴욕에서 시작됐으며 근교 지역으로 회원가입을 확대했으며 두 달에 한번씩 모임을 갖고 모임 때마다 회원작품을 만드는 등 활발하게 활동해오다 최근에는 정기모임은 1년에 1회, 각 지역별로 문학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작품집은 2년에 한 번씩 발행하고 있다.

(유원정 기자)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Table listing various churches in California with their names, addresses, and contact information. Includes churches like 감사한인교회, 나성순복음교회, 나성열린문교회, 나성영락교회, 나성서부교회, 나성제일교회, 나침반교회, 남가주든든교회, 남가주리더교회, 남가주사랑교회, 대동장로교회, 등문교회, 동양선교회, 디아스포라선교회, 드림교회, 삼성장로교회, 미주양곡교회, 미주 평안교회, 베델한인교회, 밴쿠버빌라델비아교회, 복음장로교회, 브리지교회, 세계비전교회, 세계소망교회, 안디옥장로교회, 엘버인침례교회, 오펜시온교회, 워셔크리스천교회, 은혜한인교회, 주님의영광교회, 창대교회, 코너스톤교회, 토렌스조은교회.

전세계 이슬람 주요 뉴스

전호진 박사 (이슬람 선교 전문가)

2012 전세계 이슬람 테러 결산

1) 2012년 이슬람 테러 결산

신년 미국의 이슬람 연구기관(The Peace of Religion)이 발표한 '2012년 이슬람 관련 테러 그룹'에 의한 테러건수는 총 2,800건에 사망자 17,725명, 부상자 15,708명(직접 집계한 것임)로 나타났다. 이중,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일어난 테러건수는 155건이었고 이로 인한 사망자는 848명, 부상자는 1,638명이었다. 테러가 가장 많이 발생한 나라는 파키스탄으로(647)이었고



고 이라크(638)가 뒤를 이었다. 테러가 일어난 나라는 무려 40개 국가이며, 미국이나 유럽은 비교적 적은 편이다.

-아프가니스탄(290), 나이지리아(279), 태국(175), 예멘(115), 말리(113), 소말리아(94), 시리아(90), 다게스탄(46), 인도(44), 케냐(40), 이집트(31), 이스라엘(24), 필리핀(23), 레바논(23), 이란(17), 알제리(16), 수단(16), 러시아(14), 리비아(9), 터키(3), 독일(4), 인도네시아(10), 튀니지(8), 팔레스타인(8), 카자흐스탄(1), 아제르바이잔(2), 체첸(1), 사우디아라비아(8), 요르단(6), 잉구세티아(5), 타지키스탄(2), 불가리아(1), 코소보(1), 남아연방(1), 미얀마(4), 미국(1), 쿠웨이트(1), 벨기에(2), 몰디브(1)

2) 2012년 테러 분석

2001년 9.11테러 이후 일어난 이슬람 테러는 2만 건을 넘는다. 테러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슬람이 알라의 이름으로, 혹은 종교의 이름으로 자행된 테러는 이슬람 선교에 장애가 될 것이라 예상하였지만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현재 미국뿐 아니라 한국에서도 이슬람은 도리어 부흥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기독교는 주목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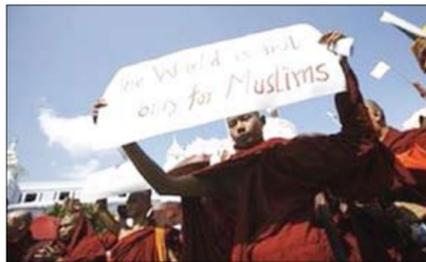
둘째, 9.11테러가 발생하자 한국 언론들이나 일부 학자들은 미국 주도의 패권주의와 반서구 감정이 폭발한 것으로 해석하면서 반미감정을 부추겼다. 이 논리대로라면 이슬람원리주의자들의 테러는 서구나 미국에서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테러는 이슬람 국가인 파키스탄,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등에서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라크의 경우는 시아파와 수니파 테러리스트들 간의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미군 철수 이후의 이라크는 불안하게 본다).

셋째, 테러 유형이 아주 다양해졌다(미국에서 일어난 테러는 무슬림 어머니가 코란을 읽지 않는다는 이

유로 친팔을 죽이고 말았다.)

3) 2013년 테러 전망

미국 시사전문지인 타임(Time)의 논설가 파리드 자



카리아는 2013년 이슬람 테러가 이집트, 튀니지, 리비아 등 아랍혁명이 일어난 지역보다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아라비아반도, 북아프리카, 인도네시아, 태국남부지역, 필리핀 및 동북아(중국신장)에서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이유는 아랍 혁명이 일어난 지역의 무슬림 형제단(Muslim Brotherhood)들이 알카에다를 거부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물론, 알카에다 외 좌익그룹과 소수 인종주의자들, 민족주의자들 및 과격 이민자들에 의해 자행되는 테러도 있을 수 있다고 분석한다.

세계 분쟁 지역 뉴스

1) 알제리 인질사태: 새로운 테러와의 전쟁으로 확대 우려

말리 반군은 지난주 프랑스가 반군의 주둔지인 말리 북부에 군사를 파견하자 보복 조치를 공언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알제리에서 이슬람 무장단체가 대규모 인질 사태 일으켰다. 이들은 알제리가 프랑스에 영공을 열어줘 프랑스군이 말리 반군 지역을 폭격하도록 했다며 보복조치였다. 알제리에서 자국민이 희생된

1 모로코	알카에다 북아프리카 지부 (AQIM)
2 알제리	AQIM, 서아프리카 통일·지하운동(MUJAO)
3 튀니지	AQIM
4 리비아	리비아 이슬람전투단(LIFG)
5 모리타니	AQIM
6 말리	AQIM, 안사르인, MUJAO
7 니제르	AQIM
8 나이지리아	보코하람
9 수단	국가 이슬람전선(NIF)
10 소말리아	알샤바브

데 분노한 서방이 말리 내전에 개입할 경우 테러 세력을 퇴치하기 위한 전쟁이 아프리카 땅에서 재연될 우려마저 있다.

이에 따라 말리 내전이 북아프리카의 다른 지역으로 확산, 서방과 이슬람 무장 세력간 새로운 테러와의 전쟁의 장으로 확대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일고 있다.

2) 아프리카에 확대되는 알카에다 조직

알카에다가 북아프리카와 아랍 국가에서 기반을 잃자 취약 지구인 북서부 아프리카의 말리 동북부, 알제리 일부, 마우타니아 등을 장악하여 이들 국가에 강력한 샤리아 국가 건설을 시도한다. 이것이 소위 이슬람화(Islamization)의 전략이다. 제2의 이라크 전선, 아프간 전선이 되지 않을까 국제사회는 우려하고 있다.

3) 비대칭의 전쟁: 말리 전쟁에 개입한 프랑스군 vs 알카에다

21세기는 바야흐로 비대칭 전쟁이 일어나는 시대이다(일본의 젊은 이슬람 전문가 이케우치 사토시는 미국의 대 테러전쟁을 비대칭전쟁이라고 정의한다. 알카에다는 전쟁을 오랫동안 지속시키려고 하는 반면 미국은 속한 종결을 원한다. 비대칭 전쟁은 우리는 피하기 위한 전쟁이지만 적이 적극적으로 시도하려는 전쟁을 일컫는다.)

①프랑스 국기 vs 이슬람의 깃발: 프랑스 군대는 프랑스 국기를 들고 전쟁한다. 물론 말리 군대와 함께! 그러나 알 카에다 전사들은 한 국가의 국기가 아닌 이슬람의 국기를 든다.

②지상 국가 vs 알라 나라의 대결: 프랑스나 말리 군대는 자기 나라를 위하여 싸운다. 그러나 알카에다 전사들은 알라의 나라를 위하여 싸운다. 보이지 않는 영적 나라이다.

③지역주의 vs 전 세계주의의 전쟁: 프랑스나 말리 군대는 말리 지역에 한정된다. 그러나 알카에다는 전 세계가 전쟁터이다.

④일시적 전쟁 vs 영원한 전쟁: 프랑스 말리 군대는 일시적 전쟁을 원하나 알카에다는 끝까지 싸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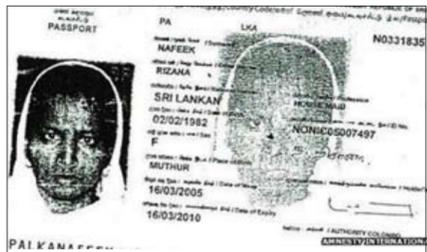
4) 인도: 힌두교 과격주의자들의 기독교 박해

신년, 인도 마하라슈트라 주(주) 기독교 지도자들은 힌두교 지도자들을 비난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유는 과격 힌두교도들이 기독교인들에게는 수돗물 공급을 중단하며, 신자들에게는 땀값나누도 팔지 않아 식생활을 아주 어렵게 한다는 것이다. 심지어 예배활동도 못하게 했다. 이것을 주도한 힌두교 집단은 힌두교 민족주의정당인 힌두트와 (Hindutva)라는 원리주의정당이다. 이번 북부인도 선거에서 힌두교 민족주의정당인 BJP가 승리함으로써 차기 수상은 이 정당의 지도자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기독교교회는 아주 어두운 소식이다. 박해는 이슬람 국가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5) 내전이 계속되는 시리아, 시리아의 기독교인들의 미래는?

사진 속 마을은 시리아에서 유일하게 1,900년간 아랍어를 사용하는 기독교 마을이다. 다마스쿠스 근교 산에 위치한 이 마을은 시리아가 이슬람 국가가 된 후에도 존속되고 있다. 반군이 이 지역을 장악한다면 이 마을이 살아남을지 우려된다.

서방세계와 아랍권의 맹비난에도 불구하고, 곧 무너질 것 같은 아사드 정권은 잘 버티고 있다. 친 아사드 국회의원들의 열렬한 박수를 받으며 임정하는 아사드는 아주 여유만만하다. 그러나 고향이나 집을 떠난 국내 난민이 200만 명과 국외로 탈출한 난민이 60만명은 엄청난 수난을 당하고 있다. 비인권의 아사드 정권은 붕괴되어야 하지만, 남은 300만 기독교 신자들의 미래가 염려스럽다. 이미 반군들은 이 지역 주민들에게 다른 나라로 가라고 명령을 내렸다고 전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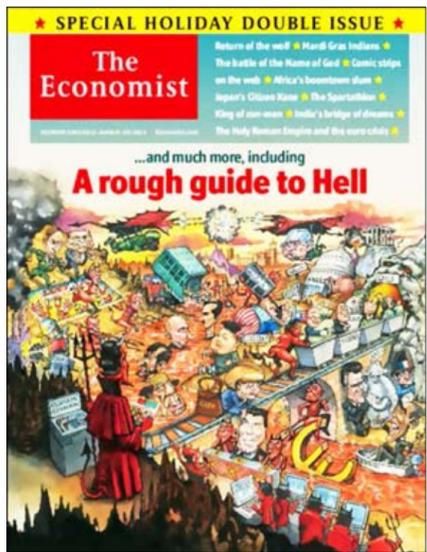
사우디 정부, 17세 스리랑카 소녀 사형집행 리자나 리피크라는 스리랑카 소녀는 사우디 가정부로 일하다가 돌보는 4개월 영아가 죽자 유아 살인 혐의로 사형을 구형, 스리랑카 정부와 국제 인권 단체의 강력한 항의에도 불구하고 결국 참수형에 처해졌다. 사우디 정부는 그녀가 23살의 성인임에도 소기업자의 주선으로 취업목적으로 나이를 속였다고 말했다.

인도의 여성 학대, 성폭력: 단지 문화가 원인?

지금 세계는 인도의 여성 폭력 문제를 연일 크게 보도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15일 KBS는 이것을 문화 문제라고 짧게 논평하는 뉴스를 내보냈다. 엄밀히 말하면 이것은 문화문제가 아니라 여성을 차별하는 힌두교의 영향 때문이다. 부모 사망 시 아들이 화장을 해야만 하는 종교적 교리도 성차별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인도의 유아살해/임신전 살해는 심각한 사회문제다).

인도에서는 연간 수 백명의 소녀들이 매춘, 강제 결혼, 성노예의 목적으로 행방불명되고 있다고 BBC는 밝혔다.

이코노미스트 특집 기사: 지옥-영원한 불 구덩이 속으로



영국 경제 전문 주간지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가 2012년 마지막 호로 세계 주요 지도자들이 지옥에 떨어진 상상도를 표지에 실은 '지옥' 특집호를 발간해 화제가 됐다.

이코노미스트는 전 세계에 번지고 있는 '21일 세계 종말론'과 관련 지옥 연구의 역사를 소개하면서 표지에 지옥을 형상화한 풍자만화를 함께 실었다. 한편 이코노미스트는 현대 성경 연구자들은 예수나 사도들이 신약에서 지옥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은 아무 것도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슬람네트워크)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안내

남부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송성섭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주일 6:00 주일학교예배: 오후 11:00 Tel: (704) 841-0821, Fax: (704) 841-1625 목사관: (704) 989-4412 3619 McKee Rd., Charlotte, NC 28270	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해근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수요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기도회: 주일 6:00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206) 522-0691, 267-471-7777 Fax: (206) 522-0692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	벅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종운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전 10: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Tel: (215) 945-1512, Fax: (215) 945-2095 155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57	벤델교회 담임목사: 진용배 주일 1부예배(한): 오전 7:00 주일 2부예배(한): 오전 8:15 주일 3부예배(한):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영양): 오전 1:45 EMB예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907) 344-6446, Fax: (410) 461-6823 3165 St. Johns Lane, Ellipton City, MD 21042	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권택영 주일한국어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어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목회상담부: 오후 1:30 주일학교: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508) 425-4579, Fax: (508) 435-5467 2 Main St., Hpkinton, MA 01748	볼티모어교회 담임목사: 이영섭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2:50 Tel: (410) 337-9448, 882-0181, Fax: 337-9446 1600 Seminary Ave., West, Lutherville, MD 21093	샬롯장로교회 담임목사: 나성균 주일새벽기도: 새벽 6:00 주일영어예배: 오전 10:45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예배: 오전 11:00 중, 고등부예배: 오전 11:00 Tel: (704) 529-0900 / 0988(텍스컴플) 701 Scarybark Rd., Charlotte, NC 28209
새시온침례교회 담임목사: 정용교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아)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Tel: (360) 456-0191 6007 Pacific Ave., SE P.O. BOX 8358 Lacey, WA 98509	시애틀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은일 주일영어예배: 오전 10:00 주일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주일 6:00(월-금) 토요일: 오전 6:30 Tel: (206) 527-0981, Fax: (206) 524-1746 4040 N.E. 105th St., Seattle, WA 98125 www.kopcesu.org	알칸사 제지교회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 오전예배: 오전 11: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Tel: (501) 920-9049, 시애틀, (501) 425-5178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www.jeas.com	앵커리지열린교회 담임목사: 유재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907) 344-6446, Fax: (907) 344-3182 8220 Briarwood St., Anch., AK 99518	엘파소열린교회 담임목사: 하태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00(영아)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주일 4부예배: 오후 7:30 Tel: (915) 755-1490, 타행(915) 751-4365 3416 Alamo Ave., El Paso, TX 79904	영생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용걸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주일 4부예배: 오후 2: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Tel: (215) 542-0288, Fax: (215) 542-9037 706 Wilmer Rd., Horsham, PA 19044	온누리교회 담임목사: 김성환 주일영어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Tel: (254) 634-8705, (254) 501-4933 408 N. 8th St., Killeen, TX 76541
워싱턴메시야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EM) 수요일예배: 오후 11:00 금요일기도회: 오후 7:45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www.mpcow.org Tel: (703) 941-4447, Fax: (703) 941-4448 4313 Markham Ave., Philadelphia, VA 22003	주에스교회 담임목사: 배현찬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45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토) www.jkcc.org Tel: (804) 560-7500, Fax: (804) 560-7514 10201 Robious Rd., Richmond, VA 23235	큰무리교회 담임목사: 나광삼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www.josephsvision21.org 매일저녁 7시(금, 토, 주일) Tel: (410) 203-0516, Fax: (410) 203-0512 3264 Corporate Court Ellipton City, MD 21042	타코마 삼일교회 담임목사: 정태근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전 12: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새벽 5:30(월-금) 새벽 6:00(토) Tel: (253) 535-1069 7461 S. Verde St., Tacoma, WA 98409	타코마새생명교회 담임목사: 임규영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영) 주일 4부예배: 오전 2:00(영) Tel: (253) 535-6207, 531-8424 Fax: (253) 539-4433 9702 E. 8 St., Tacoma, WA 98445	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수명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EM)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금요일기도회: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253) 536-6675, Fax: (253) 474-9515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	템피장로교회 담임목사: 윤정용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EM)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영)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30(토) Tel: (480) 728-0191, Fax: (480) 857-3997 1150 S. Dobson Rd., Chandler, AZ 85286
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 조진보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45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215) 927-0630, Fax: (215) 927-0643 1200 W. Cheltenham Ave., Philadelphia, PA 19126 www.kkcp.org	하트포트제일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선만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수요일예배: 오후 7:45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토) 오전 6:00 Tel: (860) 643-4738, Fax: (860) 674-0565 300 Chapel Road Manchester, CT 06040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하와이지역 담임목사: 이남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Tel: (808) 735-0011 1635-A Palolo Ave., Honolulu, HI 96816	아가페선교침례교회 담임목사: 송창현 주일영어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Tel: (808) 739-1004, Cell: (808) 218-4592 1053 6th Ave., Honolulu, HI 96816	에덴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순환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토) Tel: (808) 277-2936, 557-1778, 542-2922 1351 S. Beretania St., Hon., HI 96814	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일구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영) 주일 4부예배: 오후 2:00(영) 수요일예배: 오후 7:00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Tel: (808) 947-5252, Fax: (808) 947-5151 www.hnwchurch.org 2122 Metcalf St., Honolulu, HI 96822	

한인 교회를 위한 기독교 교육 이야기 (27)

4. 전통을 전수하는 교육 (Tradition-Transmitting Education)



정신애 박사 (사카고 트리니티크리스천칼리지 교수)

우리 한인 교회 기독교 교육의 그 네 번째 성격, 전통을 전수하는 교육(Tradition-Transmitting Education)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한인 교회의 교육이 이 땅에서 자라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한국의 전통을 전수하는 역할을 꾸준히 감당해왔으며 또한 지금도 이러한 교육이 우리 한인 교회의 교육의 큰 한 축을 이루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 찬반의 논란들이 있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인 교회가 “확신을 가지고” 아주 제대로 “의도적으로” 전통을 전수하는 교육을 우리의 교육 사역 철학과 실행에 중요한 한 축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 화두를 던졌습니다. 이에 오늘은 “도대체 왜 그래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아주 오랜 시간 우리 한인 교회들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한국적 전통을 전수하는 역할을 꾸준히 해오고

꼭 실행해야 할 만큼 정말 바랄만한 것이지에 대한 대답은 어쩐지 여전히 모호한 듯합니다.

이에, 그 분명한 대답을 두 가지 범주에서 제시해 보려고 합니다. 그 하나는 전통을 전수하는 교육이 우리 자녀들의 “자아정체성”(Ego/Self-Identity)과 “자아 개념”(Self-concept/Image) 형성과 확립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 자아정체성이란 자아에 대한 연속성, 동일성, 독자성, 불변성 등에 대한 의식 수면 위의 자각입니다. 즉 “나는 누구인가?”라는 본질적 질문을 비롯해 “나는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에 속해 있는가?” 등의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생기는 자기의식입니다.

반면 자아개념이란 자신에 대한 상, 감정 및 심리적 평가로서 자아 내부와 외부(사회, 환경 등)의 상호 작용을 통해 형성됩니다. 이는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에 대한 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인 교회가 전통을 전수하는 교육이 중요한 이유 그래서 이를 우리의 교육 사역 철학과 실행에 중요한 한 축으로 삼아야 하는 또 다른 당위는 이러한 교육이 갖는 다양한 가치들 때문입니다. 다른 가치들도 더 많이 있었으나 대표적인 것 세 가지만 열거해보자면, 첫째로, 이러한 교육이 우리 한인 교회 전체의 공동체적 정체성을 재형성하고 비전을 재확립해야 하는 우리의 당면과제를 고찰하는데 큰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인 교회들은 존폐의 위기를 이야기할 만큼 그 미래상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고민을 더욱 건강하고 건설적으로 풀어내는 일에 전통을 전수하는 교육이 상당히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가치는 이러한 교육이 전통 안에 존재해온 수많은 긍정적 자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제공할 수 있

자녀의 “자아정체성”과 “자아개념” 형성과 확립에 중요 역할 당면과제 고찰 큰 역할-긍정적 자산제공-현실적 사역 구현

있다는 것은 이를 그만큼 중요시 여겨왔다는, 그리고 실제로 중요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전통을 전수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실행해 온 이들조차도 “왜 그리해왔냐”는 질문에 어쩌면 스스로도 그 심정을 표현하는데 있어서 막연한 수긍만 있는 것, 그리고(혹은 그래서 더욱), 이러한 교육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당위가 자녀들을 교육하는 주체들인 우리 한인 어른들 사이에서도 또한 우리 자녀들과도 공통된 함의로 도출되어 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한국인이거나 한국 것을 당연히 알고 배워야 한다는 정도의 감성적 설득으로는 삶의 터전이 이 미국 사회인 현실 앞에 그 당위가 분명하게 설명되지 못합니다. 혹은 쪽 해왔던 이념, 유태인들과 같은 디아스포라 공동체를 비롯해서 다른 이민 공동체들도 다 하고 있으니까 라는 안일한 논리로는 더 더욱 턱없이 많이 부족합니다. 전통을 전수하는 교육이 왜 중요한지, 나아가 수많은 논란과 염려들을 뚫고 우리가

문에 대해 가치적 평가를 동반하여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생기는 자아상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자아 정체성과 자아개념을 형성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데 이의를 가지시는 분은 없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자녀들에게 전통을 전수하는 교육이 그것이 옳고 중요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제대로 “의도적으로” 실행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즉 바로 이러한 교육이 우리 자녀들이 자아 정체성을 단단하게 형성 확립하고, 또한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성장해가며, 이를 토대로 건강하게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전통을 전수하는 교육이 바르게 이루어질 때에만 이 미국 땅, 미국 사회에서 한국 이민자들의 자녀로서 혹은 스스로 이민자로 살아가는 그리고 앞으로도 살아갈, 민족적 인종적으로 한국인인 우리 자녀들이 혼란과 위기를 넘어 든든한 자아 정체성을 형성 확립하고 또한 건강하고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형성, 확립

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그 긍정적 자산들이 우리 자녀들의 신앙과 인격과 품성을 성장시키는 데 더욱 더 풍성한 교육적 자료들이 되어 줄 것이라는 기대와 실제로 그래왔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 가치는 이러한 교육을 통해 우리의 전통들을 우리 한인 교회의 현실적 사역에 긍정적으로 구현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물론 우리의 전통들을 긍정적으로 건설적으로 우리 사역에 적용시켜주시고 이를 위해 섬기는 자들의 창조성과 열정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우리 한인 교회의 전통을 전수하는 교육의 당위가 무엇인지 간단히 소개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이러한 교육이 자녀들의 자아정체성과 긍정적 자아개념 형성 및 확립에 큰 역할을 하는 부분”과 “이러한 교육이 지니는 다양한 가치들에 대한 부분”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다음 번 이야기들에서 차례차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연락처: sinaichung@yahoo.com

매일가정예배

전화령 목사(브니엘장로교회)

월 소자를 섬기는 사람(잠29:1-14)찬216장

관계 생활의 복된 길을 보여주는 본문은 소자에 대한 관심을 가지라고 가르칩니다. 첫째, 13절에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아도 하나님의 자비는 한결같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일반 은혜 속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가난한 자로 표현된 신자에게는 악인이 갖지 못하는 특별한 은혜가 따릅니다. 거듭남과 죄사함과 영생은 선택된 자기 백성에게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가라지와 알곡이 섞여 자리지만 마침내 선악간 심

판을 받습니다. 섞여있는 동안 악인을 옳은 대로 돌이키려는 수고를 하는 것이 신자의 사명입니다. 둘째, 14절에 왕이 소자를 신원할 때 권위가 세워짐을 가르칩니다. 소자를 무시함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의 마음은 언제나 가난한 마음을 유지해야 합니다. 교회생활에 소자가 용납되도록 낮은 마음으로 살 때 영권이 세워집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소자 섬기는 마음 위에 주어집니다.

화 여호와 경외신앙(잠23:15-35)찬394장

악인이 잘됨을 보고 마음에 괴로움을 느끼는 것은 흔히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이 갈등은 하박국 선지자도 그랬고(합3:13-17) 시편기자도 그러했습니다(시73:). 이때 마음 움직이는 대로 따라가면 큰 시험에 빠지기 쉽습니다. 잠언의 형제는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첫째, 죄인의 행동을 부러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실상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시편기자는 성소에 들어가서야 미끄러운 가운데 두어 줄자에 망하게 하시는 하나님

의 손을 보았기 때문에 두려워했습니다. 둘째,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십니다(17). 하박국 선지자가 경험한 갈등문제는 하나님이 밝혀줄 때 깨달았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께 아무 것이 없어도 오직 하나님만 믿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 경외신앙입니다. 주를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은 악인이 모르는 신령한 세계를 보며 사슴의 발처럼 모든 문제의 산들을 밟고 다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수 미련의 죄(잠26:1-16)찬337장

일정한 견해가 없는 어리석음보다 한단계 더 나아가 미련함이란 악에 연단돼 고정된 철면피 상태를 가리킵니다. 왜 미련한 삶을 경계해야 합니까? 첫째, 망령된 행동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름에 눈오는 것이나 추수 때가 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풍성하고 놀라운 은혜의 가치를 모르고 쉽게 배반합니다. 한 그릇 음식에 장자의 명분을 판 예서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해 버림받았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심판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다(3). 말에는 채찍이 필요하듯 미련한 자의 등엔 막대기가 따른다고 한 것이 그 뜻입니다. 영적미련은 하나님 은혜를 대적하는 디오 드레베의 죄를 범하게 합니다(요삼1:9-10).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성령의 길을 막는 분주주의자가 됩니다. 셋째, 영적나태로 나가게 하기 때문입니다(13-15). 세상일엔 부지런하면서 영적 일에 게으른 자는 불로소득을 좋아하는 욕적근심에 빠지게 됩니다. 성령받은 신자는 근면한 사람입니다.

목 자연을 통한 잠언(잠30:18-33)찬40장

일반은총인 자연은 죄로 인해 어두워졌지만 복음 안에서 회복됨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공로가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괴로워하는 용에게 자연 만물의 운행을 통해 교훈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어떤 교훈입니까? 첫째, 바위 위를 지나간 뱀의 자취, 배의 자취, 음녀의 자취, 남편관계의 자취를 들어 은밀한 죄를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둘째, 세상을 진동시키는 4가지 즉, 종이 임금된 것, 미련한 자가 배부른

것, 꺼림 받은 계집이 시집간 것, 계집종이 주모된 것을 통해 겸손한 마음의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줍니다. 셋째, 작은 것으로 지혜로운 생물 곧 개미 사반, 때뚜기, 도마뱀을 통해 작은 일에 충성할 것을 가르치며 위풍 있는 것을 곧 공사, 사냥개, 수염소, 왕을 통해 여호와 경외하는 자의 담력을 가르쳐주셨습니다. 만물을 통해 주시는 놀라운 진리를 배웁시다.

금 여호와 경외하는 여자(잠31:1-31)379장

본문의 현숙한 여인을 그리스도 자신, 그리스도인, 그리고 가정의 여인들로 보는 세 견해가 있습니다. 현숙한 여인이라? 첫째, 남편에게 인정을 받습니다(11-12). 남편이 칭찬하고(28), 그를 믿으며(11, 23), 남편의 기를 세워줍니다(12). 그리고 남편에게 선을 행합니다. 현숙한 여인은 진주보다도 귀합니다. 믿는 여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가정에서 진주와 보석이 되어 새로운 일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둘째, 덕이 많습니다(20). 이웃

에게 나누어주는 자입니다. 가난한 자를 돕고 부지런합니다(13-19). 그는 주는 자의 축복의 비결을 진정 아는 자입니다. 셋째, 하늘 지혜를 가집니다(26). 인내와 지혜가 입에 있고, 능력과 존귀로 옷을 입습니다(25). 이 모든 것은 말씀묵상과 기도를 통하여 임하는 열매입니다. 새해에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잠언의 현숙한 여인으로 살아갑시다.

토 하나님의 손가락(출2:1-25)235장

모세의 생애를 통해 보여진 하나님의 능력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첫째, 모세의 출생과 성장 속에 나타났습니다(1-10). 요게벳이 왕명을 거역하고 3개월 숨겨 키운 행위나 갈 상자에 넣어 나일강에 버린 일은 하나님섭리의 손길을 보여주며 특히 바로공주가 우는 아이를 불쌍히 여긴 마음이 생긴 것은 은밀한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가락이었습니다. 둘째, 미디안으로 도피할 때 나타났습니다(11-24). 자기 힘을 의지해 하나님

의 일을 하려던 모세의 실패는 미디안 광야생활을 하게 했고 40년 동안 자아를 부인하도록 훈련시킨 일은 바로 하나님의 손이었습니다. 셋째, 언약백성의 증보자로 세워질 때 그 손은 나타내셨습니다(24). 이스라엘의 탄식하는 소리와 모세의 자아부인의 변화가 함께 어울리는 상황을 만드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한 해에도 하나님의 구체적인 손가락의 이끄심을 의식하고 겸손히 따라갑시다.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해외 교회안내													
강남중앙감리교회 담임목사: 노재현 주일1부예배: 오전 5: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Tel. (02)525-7767, HP. (07)237-8258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418-20	군포제일교회 담임목사: 권태진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00 주일5부예배: 오후 2:30 저녁예배: 오후 7:30 Tel. (031)397-6754~5 군포시 금정동 870-10호	금관교회 담임목사: 김정민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www.kumnan.org Tel. (82)2-490-7000, Fax. (82)2-436-5770 서울시 동북구 영등포동 340-1(131-231)	김포제일교회 담임목사: 김동성 주일1부예배: 오전 7:4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http://gimpoch.org Tel. (82)31-984-2939, Fax. (82)31-983-4853 경기도 김포시 북동동 264번지	광주신일장로교회 담임목사: 한기승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기도회: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00 금요심리기도회: 오후 9:00 Tel. (062)523-9419, Fax. (062)522-4834 500-170 광교광역시 북구 교문동 936-1번지	동경중앙교회 담임목사: 이강현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 주일4부예배: 오후 5:00 Tel. (03)3208-8491~5, Fax. (03)3208-8438 2-18-8 Okubo Shinjuku-ku, Tokyo, Japan	든든교회 담임목사: 장영희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전 11:00, 7:00 금요기도회: 오후 9:00 Tel. (031)977-8383~9, Fax. (031)977-8382 (우)410-83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용산동 1670-1	로마한인교회 담임목사: 한병우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매일) Tel. 39-06-827-3585, 39-348-339-1726 39-06-943-3676(교우실) VIA DEI QUINTILI 32-39 00175 ROMA, ITALY	명성교회 담임목사: 김삼환 주일1부예배: 오전 7:20 주일2부예배: 오전 9:20 주일3부예배: 오전 11:20 주일4부예배: 오후 1:20 새벽기도: 오전 4:30 (1부부터 4회) Tel. (82)2-440-9000, Fax. (82)2-440-9099 서울시 강동구 명일동 330-5, (134-830)	삼보교회 담임목사: 박창윤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0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회: 오전 5:00 Tel. (02)2645-6567~9, Fax. (02)2652-6568 서울시 양천구 목동2동 622-3 (158-053)	새에덴교회 담임목사: 소강석 주일1부: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 오전 11:00 주일4부: 오전 12:30 주일5부: 오후 2:30 (젊은이를 위한 현대예배) 대표전화 (031)896-1000, 팩스(031)896-6077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복동동 1312번지	성문교회 담임목사: 황정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후 3:30 새벽기도회: 오전 5:00 주일4부예배: 오후 6:30 Tel. (82)2-2646-3181~3, (82)2-2646-3184 서울시 양천구 목동2동 520 (158-808)	성실교회 담임목사: 김영복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www.seongsil.or.kr Tel. (82)2-986-9968, Fax. 3927-1008 서울 강북구 수유동 221-4(142-073)	성일교회 담임목사: 김정곤 주일1부예배: 오전 5: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 (토요일은 없습니다) Tel. (82)2-2643-8553~4, Fax. 2648-466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3동 713-26호
수령교회 담임목사: 이규현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8:50 주일3부예배: 오전 10:30 주일4부예배: 오후 12:20 주일5부예배: 오후 2:00 Tel. (82)51-740-5500, 4556~8, Fax. 740-4560 부산광역시 해운대 우정동 1418-2, (612-824)	수정교회 담임목사: 조일래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Tel. (82)2-568-0191, Fax. (82)2-562-2738 인천시 서구 불문동 416-4(404-270)	승동교회 담임목사: 박상훈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수요예배: 저녁 7:00 Tel. (02)32-568-0191, Fax. (02)389-2235 (110-290) 서울시 서초구 인성동 137 번지	시은교회 담임목사: 김성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 오전 5:00(월-토) Tel. (031)253-1004, Fax. (031)253-101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미사리동 419-2	신길교회 담임목사: 이신용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수요예배: 오후 7:00 Tel. (82)2-842-1968, 새벽(011)82-2-842-1968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613-3, (150-051)	신촌교회 담임목사: 이정익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8:00 주일3부예배: 오전 9:3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후 8:30 Tel. (82)2-786-6579, 새벽(82)2-338-5671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49-45	안암 제일교회 담임목사: 조 윤 주일1부예배: 오전 6:30 주일2부예배: 오전 7:30 주일3부예배: 오전 9:00 주일4부예배: 오전 11:00 주일5부예배: 오후 2:50 주일6부예배: 오후 7:30 심야기도회: 오후 8:30 Tel. (011)82-2-927-5511 서울 용인구 이촌동 302-67 (140-031)	양곡교회 담임목사: 지용수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8:50 주일3부예배: 오전 11:40 주일4부예배: 오후 7:30 수요예배: 오전 10:30/오후 7:30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5:30/6:30/9:00 Tel. (055)210-5500, Fax. (055)210-5510 (641-370)경남 창원시, 신안구 용암동 415 www.yankok.org	왕성교회 담임목사: 김자연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Tel. (82)2-888-4813, 331-284-7204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641-24 (151-029)	장위제일교회 담임목사: 김기원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회: 오전 5:00 금요심리기도회: 오후 9:30 Tel. (02)942-6881, Fax. (02)942-6882 (136-831) 서울시 성북구 강위3동 79-12	주안교회 담임목사: 나결일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8:00 주일3부예배: 오전 10:00 주일4부예배: 오전 12:00 주일5부예배: 오후 2:00 주일6부예배: 오후 4:00 주일7부예배: 오후 7:00 Tel. (82)32-527-1009 인천광역시 부평구 인목4동 294 (10403-838)	창대교회 담임목사: 최용도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0:2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금요기도회: 저녁 9:00 새벽기도회: 새벽 5:30 Tel. (043)275-9191, Fax. (043)273-8114 361-833 충북 영주시 흥덕구 서성동 239-12	청주주님의교회 담임목사: 주서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2:0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새벽 5:30 Tel. (043)275-9191, Fax. (043)273-8114 361-833 충북 영주시 흥덕구 서성동 239-12	충신교회 담임목사: 이준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주일3부예배: 오전 10:0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1:30 Tel. (82)2-793-7740 서울시 용인구 이촌동 302-67 (140-031)



제 28회

세계한인목회자 및 평신도 지도자 세미나

강사



김성길 목사
• 시온소교회
• 주강사



김종준 목사
• 꽃동산교회
• 주강사



장영준 목사
• 발행인



권태진 목사
• 군포제일교회



항의영 목사
• SBM 대표



현성덕 목사
• 캐나다대회장



이영섭 목사
• 볼티모어교회



김기원 목사
• 장위제일교회



김승현 목사
• 풍년포 장로교회



홍민기 목사
• 호산나교회



김만영 목사
• 천구들교회



김순식 목사
• 김제 중앙장로교회



김주경 목사
• AMNOS미니스트리대표

주제:
들으라 이스라엘아!
생명의 말씀을 자녀들에게(신 6:4-9)

“Hear, O Israel”
Word of Life to Our Next Generation!

일 시 2013년 4월 9일(화)~4월 18일(목)(9박 10일)

세미나장소 **Ramada Jerusalem Hotel**

Ruppin Bridge At Herzl Blvd., 11-91033, Jerusalem, Israel
Phone:972-2-6599999 Fax:972-2-6511824

- **참석대상**
1) 전 세계에 계신 현직 한인 목회자, 선교사, 전도사 부부
2) 평신도 지도자(장로, 권사, 집사)
- **등록비**
9박 10일(세미나 등록비, 성지순례 제반비용, 호텔 숙박비 포함): **1400불**
* 성지순례 코스 : 십자가의 길(Via Dolorosa), 감람산, 여리고, 사해, 갈릴리호수 등
* 항공표는 별도 개인 구입
* 4월 9일 예루살렘(Tel Aviv Ben Gurion Airport: TLV) 도착하면 현지공항에서 호텔까지 픽업해 드립니다.
- **항공권 문의:** 세계여행사(World Travel Bureau, Inc.)
1-800-777-9136 담당자: 리디아 정
NY: (212)917-0022, CA:(562)403-2277
- **등록마감: 2013년 2월 28일**
- **등록신청**
- Online : 신청: <http://www.chpress.net>
- NY사무실: ny@chpress.net / Fax.718.886.0074
노선희 전도사:shknoh@gmail.com / TEL(718)886-4040
- LA사무실: la@chpress.net / Fax. 323.665.0046
이성자 전도사: TEL.(323)665-0009
- 한국연락처: 설철호목사(schgil@hanmail.net)
(재)에듀넥스트교육개발원
TEL. (02)583-9136~8 / Fax 588-0709

제28회 세계한인목회자 세미나 등록 신청서

이름	한글	영어	직분	성별
이름	한글	영어	직분	성별
교회 이름	한글			
	영어			
교회 주소				
전화	Fax.		E-mail.	
사택 주소				
전화	Fax.		E-mail.	

()와 같은 방을 쓰기원함

관광에 참여하기 원함

등록금	목회자	
X명	평신도	
소개		
선금	CK#	
잔금	CK#	

본인은 제28회 세계한인목회자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주후 20 년 월 일

서명: _____

* 위의 영어 명은 반드시 여권 이름으로 써 주십시오.
* Pay to the order 는 The Christian Press 로 써 주시면 됩니다.
* 등록 (100불 이상 등록금을 보내신 분) 즉시 등록 접수증을 보내드립니다.
* 선금을 등록일 이전까지 완납하여야 합니다.
* 등록 취소 시에는 50불을 제외한 전액을 환불해 드립니다.

* 미주크리스천신문사에서 미자립교회 목회자를 위한 '성지순례 세미나 등록비' 후원금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